

제 1 교시

국어 영역

[01~03] 정보전달의 화법

올해 6월 평가원을 제외한 모든 17 이후 기출이 정보전달의 화법.

1.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독서 : **내용(중심)** + 구조  
 화법+작문 : 내용 + **구조(중심)**  
 따라서, 화작문의 정보처리는 구조중심이어야만 함.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월 평가원)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 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에서 확인 되듯이 선지 자체가 내용이 아닌 **구조**로 출제됨. 따라서, 지문 정보처리를 구조로 좌측 여백에 필기로 처리해두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기존 수험생의 사고 흐름

- ① 지문은 이미 내용으로 처리
- ② 하지만, 선지는 구조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즉각 판단이 안 됨.  
 ∴ 선지에 들어가면, 이미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 + 지문 **내용**  
 ⇔ 선지 **내용** 매칭시킴

운이 좋게, 판단이 되면 모르겠으나,  
 특히, 수능 당일의 신중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단어, 조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제의도/설계가 아닌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한 결과, 뭔가 fit하게 들어 맞는 느낌이 들지 않음.

- ③ 신중한 성격일수록 지문으로 돌아가고 선지로 다시가는 과정의 반복 ∝ 시간지연 ∝ 정보처리 복잡성 ∝ 때때로 혼란 가중 ∝

하지만, 화작문에 대한 평가원의 의도 설계대로 접근하면?

1.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작문 영역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화작문 정보처리Formula>**

- ① 독서 **구조처리** +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 ② 1<sup>st</sup> 문항은 **주제+전개방식(구조)** 묻는 설계
- ③ 2<sup>nd</sup> ~ 3<sup>rd</sup> 문항 역시 결국 **주제+구조**
- ④ **매체, 특히 (괄호) 주의**

위와 같은 정보 처리 공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 풀이 흐름이 생긴다.

**첫째, 학습자가 알 수밖에 없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의 화작문 '내용'과 '구조'가 제시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소비가 줄어든다.**

단, 이 부분에서 화작문 시간 지연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습관(routine)의 문제이다. 이 경우 문제의 원인은 속박음, 어휘력 부족, 배경지식 부족, 상향식 독서 및 하향식 독서 모형과정에서 협응 부족으로 인한 정보처리의 혼란함과 시간지연이 생긴다. 해법은, 긴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내공을 쌓는 수밖에 없으나, 지금 이 시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복습'이다. 그래서 그렇게나 수업시간에 복습을 강조하고, 복습 설계를 진행한 것이다. (아! 그럼 망했어요? that's no no) 마지막 복습, 올해 6/9평가원 구조 처리를 1~3회 이상 반복한다. 식상해졌는데, 연습이 더 필요하다면, 22예비 평가, 작년 수능, 작년 6/9 다시 구조 분석한다. 배운대로, 하다보면 느낄 것이다. 시간이 줄어드는 구나. 물론 마지막에 1~2회 이상의 실전연습으로 생소한 지문으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핵심은, 화작문 시간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고, 위의 첫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습관 및 내공 부족으로 인한 화작문 정보 처리 속도의 지연 문제는 올해 6/9평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해결한다.**

**둘째, 선지에서 묻는 정보처리 형태는 '구조'에 대한 key data 이므로, 이미 '구조'로 처리했다면 fit이 들어맞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지연, 주저함, 피로도, 실수, 모든 부분에서 이득.**

**셋째, 신유형도 결국은 주제+구조로 집중하면 출제자의 의도와 설계가 보인다.**

1-2.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작문 영역 정보처리 공식**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 해설 교재 마지막)

(배운대로, 시간 재며 평가원 정보처리 공식 적용 후 우측의 필기와 비교할 것. 또한 연습이 더 필요한 경우를 위한 추가 문항 및 해설 역시 교재 마지막에서 다시 제공.)

2021-6월[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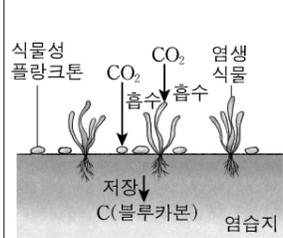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2021-6월[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안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블루카본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몰라기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 ⑤

**경험. 공감**

**통계 수치 근거**

**주장**

**예반**

**통계 수치 근거**

**수치 근거**

**간접적 비유(은유)?**

**논란 X 예상 가능 반론!**

**역시 구조!**

**대체가 아닌 S1S2+S3 역시 구조!**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자.

신유형. 역시 주제 정보가치 높은 정보!

[04~07] 상호작용의 화법+작문 통합형

18 이후 확립된 화작문 통합 유형으로, 1회의 예외가 있으나, 이제는 전형적으로 대화 지문 + 화법 작문 통합형.

1.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독서 : **내용(중심)** + 구조

화법+작문 : 내용 + **구조(중심)**

따라서, 화작문의 정보처리는 구조중심이어야만 함.

2.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담화의 특성상 맥락과 표면적 정보가 아닌 ‘이면적’ 정보, 즉, 내용을 곧이 곧대로 보는 것은 이미 초등, 중등과정에서 충분한 연습이 끝남. 따라서, 이면적 정보처리-구조 처리가 필수임. 특이한 구조가 제시되면, 주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월 평가원)

-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인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 ④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1’은 ‘학생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3’은 ‘학생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3’은 ‘학생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에서 확인 되듯이 4번 문항은 구어담화와, 문어담화의 차이를 묻는 개념 묻는 문항이며, 5번 문항은 역시나 전개방식/구조 처리를 묻

는 문항임. 내용을 전혀 몰라도 출제의도/설계가 확인 되듯,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내용일치’로 푸는 것이 절대로 아님. 내용 일치로 풀릴 수가 없고, 사실은 개념+구조로 털어낸 것인데, ‘무의식’에서 작용한 구조+개념(상식)처리를, 상위인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내용일치로 풀었다고 착.각. 하는 것임.

우리는 사고(思考, thinking)라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도대체 어디서 내용을 묻고 있지? 구조나 전개방식 또는 개념을 묻고 있고, 실제로 문제 풀이 과정도 마찬가지임. 당신이 출제자라면, 초등학생도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고3 대상으로 출제할 이유가 있을까?

기존 수험생의 사고 흐름. 역시나...

- ① 지문은 이미 내용으로 처리
- ② 하지만, 선지는 구조/개념 구성되어 있으니 즉각 판단이 안 됨. ∴ 문제 읽고 선지에 들어가면, 이미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지문 내용** ⇔ 선지 **내용** 매칭시킴 운이 좋게, 판단이 되면 모르겠으나, 특히, 수능 당일의 신중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단어, 조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제의도/설계가 아닌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한 결과, 뭔가 fit하게 들어 맞는 느낌이 들지 않음.
- ③ 신중한 성격일수록 지문으로 돌아가고 선지로 다시가는 과정의 반복 ∝ 시간지연 ∝ 정보처리 복잡성 ∝ 때때로 혼란 가중 ∝

하지만, 화작문에 대한 평가원의 의도 설계대로 접근하면?

2.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작문 통합 유형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화작문 통합형 정보처리 Formula>

- ① 대화는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구조 **딱세계**
- ② 문제부터 확인, 정보 **군집** 확인
- ③ 문제부터 확인, 처리 방식 달라지는 정보 **확인** 단, 지문 세부내용은 문제에서 **확인 no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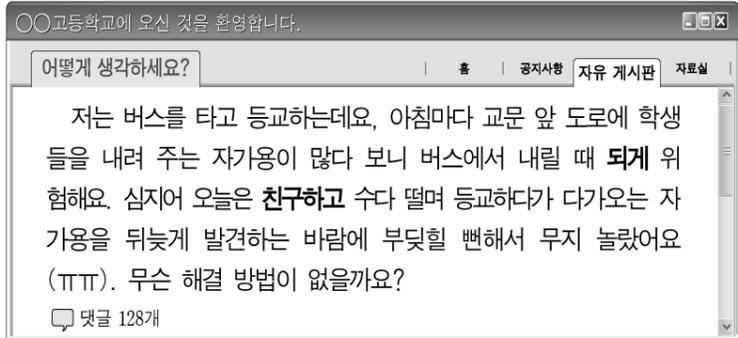
예를들면, [A]괄호가 있는 경우, 호흡을 끊고 바로 문제로 와도 무방. 최근에는 (가)/(나)와 같이 지문 단위 호흡 문항이 대부분. 정보량이 많고, 특히 대화는 정보 흐름이 산발되므로, 구조/정보처리를 놓치기도 하며, 대화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 하나 확인하고 왔다갔다 하면 무조건 시간은 심각하게 지연됨.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 mind set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한 정보 근거로 정답선지 **쑵아** 내는 사고 흐름임 기억

지문 근거 ⇨ 선지 판단. 이거 아님.  
지문 정보처리 ⇨ 의도/설계한 당연한 정답 선지 찾기.

[4~7]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학생 1 :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학생 2 : 아, 등굣길 문제?  
 학생 3 :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1 :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학생 3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학생 2 :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학생 1 :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학생 3 :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학생 1 :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학생 2 :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학생 3 :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학생 1 :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학생 3 :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협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학생 2 :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굣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학생 1 :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협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 물론 건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서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일  
 ○○고등학교학생회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인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 ④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1’은 ‘학생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3’은 ‘학생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3’은 ‘학생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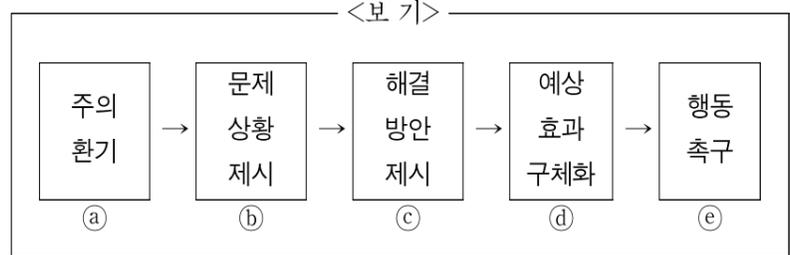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전략에는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 등이 있다.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 등이 활용된다.

- ① ㉠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④ ㉣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7.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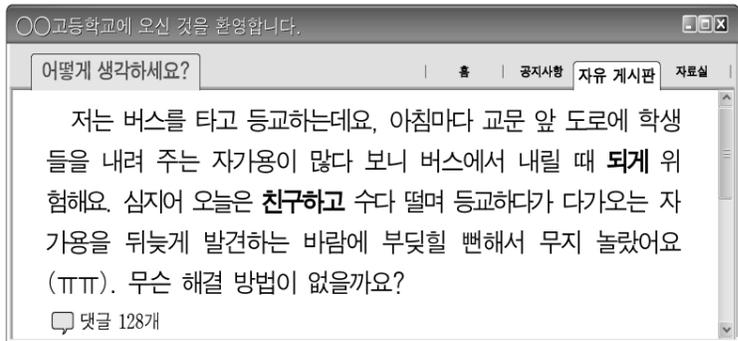


- ① ㉠ : (나)에서 안전한 등갯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갯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체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 (나)에서 등갯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4~7]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가)는 경험담

학생 1 :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Q. 도입

학생 2 : 아, 등굣길 문제?

학생 3 :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1 :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Q. 주제

학생 3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A. 동의

학생 1 :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주장

학생 2 :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예시+반박

학생 1 :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근거+재반박

학생 3 :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근거+반박

학생 1 :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 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근거+재반박

학생 2 :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근거+반박

학생 3 :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합의/대안 제시

학생 1 :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을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합의/대안 제시

학생 3 :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협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경험 상기

학생 2 :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굣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통계 자료

학생 1 :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이야 여기까지 풀고 풀이 5번 풀이로 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Q. 경험

㉠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협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통계수치

㉣ 물론 건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서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장점

㉤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뭐지? 이표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일 ○○고등학교학생회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도/설계는 내용확인 아니죠. 개념. 즉,

구어담화 특징 : 비격식, 줄임말, 자유로움

문어담화 특징 : 격식 + 나머지 특색 반대.

근데 이걸 상식 아님?. 3번 제외 전부 확인. 정답 3번

구어 담화 : 참여자 모두가 한 자리

문어 담화 : 글로 보는데? 참여자가 모두 한 자리 mono 정답!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중의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④ (가)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다)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4번 문항의 의도 설계, 오답 유도는, 구어vs문어 + 친교표현의 비격식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분류, 즉

	(가)	(나)	(다)
답화상황	문어	구어	문어
어투	구어체	구어체	문어체

하지만, 그냥 상식 접근 clear.

(나) [A][B] 구조 정리하면,

학생1 vs 학생 2+3 구도= 논증구조 = 근거+반박에서,

마지막에 학생3이 합의점 도출.

내용 확인은 추후 시간 가지고 확인하면 됨.

출제의도와 설계가 구조이니 구조에 집중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1'은 '학생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생1 vs 학생 2+3. 바로 out

- ② [A]에서 '학생3'은 '학생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학생1 vs 학생 2+3. 이외의 내용 없었는데? 확인 바로 안 되지만, 일단 out.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논증구조에서 다수 생각이 나와 다르면 그게 '근거'가 될까?

- ④ [B]에서 '학생3'은 '학생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생2+3은 동맹인디? 마지막 합의를 이렇게 쓴거? 역시 out

- ⑤ [A], [B] 모두에서 '학생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생1vs2 확실하고, Q-A구조 잡은 것 확실하고.

그렇다면 좁히고 발췌독! 역시 정답!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전략에는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 등이 있다.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 등이 활용된다.

- ① ㉠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보기- '경험'은 '감성'이라고 해놓고? '전문가' 의견 '이성' 연결?

- ② ㉡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보기- '경험'은 '감성' 정답!?!... 그래서 구조 잡으라고! 좀!

대비? no no 공통.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네. 수치-객관-이성. 너무 편안한 정답이구요. 95% 좁히고

지문 가서 나머지 5% 확인. 정답!

- ④ ㉣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이게 맞나? 하면서 가면 시간, 정확도 다 손해라 했음.

예상가능한 반례. 즉 예외사례 제시했던 구조네! 하고 넘겨야죠?

- ⑤ ㉤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표현법이 이상하긴 했는데...

설의? 반어? 네... 개념에서 정답 확률 13% 미만.

이미 3번이 특정 되었는데 시간 많으시면 확인하시고...

㉤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나저나 이 표현법은 뭐징?

이중부정? 촌데레 화법? '님은 제가 싫으신가요?' 뭐 이런?

설의? 이러다 터지는 거임... 제발 좀. 왜 답이 명확히 나왔는데 틀린 것 틀린 이유를 찾아?? 능지 순임...

굳이 옳게 고치자면,

㉔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문제상황을 상기하며,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설의적 표현

입

그런데?

이거 서울대 국어교육과 4학년 수업에서도 뭐가 맞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 날 선지임.

주장+근거 만 갖추면 논리의 기본은 갖춘 것이라 반박 매우 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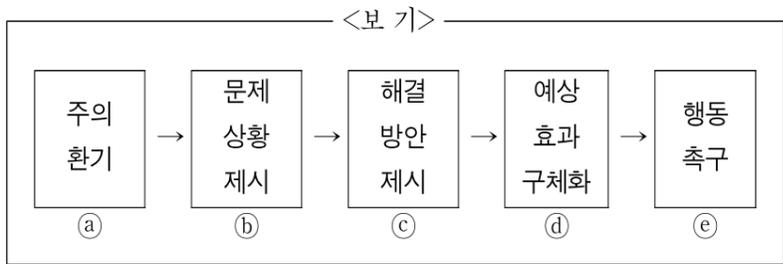
제발 문항 설계와 의도를 이해하면서 답 특정하는

평가원 mind set과 사고 흐름 잡아가야지.

방구석 전문가들 분석질 no no

여러분은 더 큰 물에서 더 크게 크셔야죠

7.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나)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구조는 거의 맞음

화제-도입-경험

② ㉡ :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는 거의 맞음

화제-도입-문제 제기

③ ㉢ :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상가능반론-예외사례...인데 이게 해법이라고? 정답이네. 99% 특정 후, 1% 발췌독.

그리고 집 머니까 차타고 다니지 말고 일찍 일찍 일어나서 학교 오라고? 도대체 뭘 근본 없는 째소리신감

④ ㉣ :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제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장점 제시 dz

⑤ ㉤ : (나)에서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제안. 실천 촉구 dz

100% 특정은 안 되는 오답선지들이라도

이미 정답이 100% 특정된 3번인데, 시간들 많으신가봐요.

아니, 능지순이라니까.

저거 다 확인하고 있으라고 낸 시험인데 시간이 80분?

생각 좀 하고 삽시다...

평가원은 제발...

이미 지문에서 주제+구조+의도한 사고 흐름 잡았으면

정답 선지 특정 시키는 것 뿐임.

제발 위와 같은 사고 흐름으로 최근 기출들 분석하면서

사고 흐름 잡아주세요.

그게 연습 되면 무조건 시간 줄어들

정답률이나 피로도...

[08~10] 설득의 작문

17 이후 기출 중 단 한 세트 제외한 전체가 설득의 작문.

1.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설득 = 논증구조중심  
 독서 : 내용(중심) + 구조  
 화법+작문 : 내용 + 구조(중심)  
 따라서, 화작문의 정보처리는 구조중심이어야만 함.

9. 위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월 모의고사)

- ① 1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한다.
- ② 1문단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 ③ 2문단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부분은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한다.
- ④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법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 ⑤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걸 보고도, 이걸 풀고도, 구조 중심의 처리를 안 하겠다면, 내용 중심의 처리만 하겠다면...

3.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작문 영역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작문 정보처리 Formula>**

- ① 논증구조 = 주장+근거  
(도입) +  
주장 + 근거  
+ (예시) + 예상가능 반론 + 재반박
- ② 구조 처리 중심으로 접근 할 것.
- ③ 유형별 접근 틀 확립 할 것

예를들면, 고쳐쓰기 유형은, 해당 정보를 처리할 때 ① 글의 구성원리(80%), ②macro 문법 사항(20%)을 확인하며 접근. 맞춤법 같은 딱한 문제 어그로 끌리지 말 것.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19수능 로봇 세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수능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5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중략)…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략)…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 로봇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

[A]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③ ㉢을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을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 (중략) ...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 특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략) ...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지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부여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목적, PS구조 정답**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③ ㉢을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을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재반박. 근거 예시

①범주 ②반대주장

당시, 이슈가 있었던 문항인 만큼 상술 하겠습니다.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능 시험범위인 ‘교육과정’에서 는 일반적으로 화법의 본질, 작문의 본질, 독서의 본질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① 의사소통 행위
- ② 문제해결 행위
- ③ 지식구성 행위

즉, 문제 해결행위.

그러니, 문제

- ① 학생들이 잘 모르고,
- ② 목적을 궁금해하고,
- ③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고,

그 해결은

- ① 학생들이 잘 모르니 설명해주고
- ② 목적을 궁금해하니 답해주고
- ③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으니 논증구조로 반박해줍니다.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중략)...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위와 같이 주제 세팅 되는 1~2단락 초반부 까지 도입. 당연히 그 사고 흐름을 잡는 문항이 이어집니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내용 일치로 접근시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 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마지막 내용이 기억이 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2번 선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고...

이러다 답이 안 보여서 시간, 실수, 정확도... 모든 것을 손해 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잘 푼 학생도 있지만)

출제 의도와 설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낼 의도 엿을까요?

고3 시험에? 쟁민이들도 시간만 있음 풀 문제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근거 잡아 접근??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로봇세 도입 목적을 궁금해 하니

로봇세 도입 했을 때 장단점이나 전망 이야기 해주면 문제 되나요?

그러면 마지막 단락이나 2번선지 같이, 로봇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세 도입에 따라서, 로봇세 도입의 목적에 따라서, 안락한 삶이 방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논리적 문제는, 그렇다면, 모든 문제 풀이시에 항상 점검 하셔서 적용하시는 접근 기준인가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때가 되셨습니다.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상황 P-S 로봇세 개념을 모르니P-S설명하면 됨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상황 P-S 로봇세 도입 목적 모르니 P-S설명하면 됨

특히, 도입 목적 P:로봇으로 일자리 잃음 - S:지원

㉣작문 상황의 구조

1단락 도입 단락의 구조

구조 + 구조 뺀세계 잡아주심 깔끔하게 의도 확인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상황 논증구조로 반박

주장 : 로봇세 도입 반박

근거 : 로봇세 도입의 문제점 + 로봇 도입의 문제 없음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즉, 구조로 텅었을 때 2번 선지는 전혀 상관 없음이 보이면서 바로 편하게 정답! 특징!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 (중략) ...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략) ...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보기 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위와 같은 처리면 충분)

	㉠	㉡	㉢	㉣	㉤
로봇 문제 = 로봇세 찬성	○	○	△	✖	○
로봇 장점 = 로봇세 반대	✖	✖	△	○	○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 로봇의 문제  
지문 구조 : 도입부  
정확. 편안.

② ㉡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 로봇의 문제  
지문 구조 :  
주장 : 로봇 찬성 입장 = 로봇세 반대 도입부  
근거 : 불공정과세, 이중과세, 경제적 손실  
정답 끝!

보이지요? 내용일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논증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이고, 내용은 독서에서 충분히 묻고 있으니... 구조 중심의 출제.

- ③ ㉢를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를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 유형은 암기바랍니다.

1. 반대 서술

2. 범주

즉,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를 해야 비판이고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야 비판입니다.

< 보 기 >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C : 로봇 도입

E.P : 일자리 대체로 인한 문제 발생

S : 로봇세 도입

이라는 지문에 언급된 내용 선상의 흐름이 <보기>에 있고

[A]에 대해 반박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예상가능 반론) 역사적으로 볼 때 (근거)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반박) 산업 혁명(반례)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반박 = 주장 다시 정리)

A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반박 해놓고 혼란 가중시키는 유형이 있었고, 이는 비판 유형 기본 유형을 놓쳤을 때 발생합니다.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A]의 주장 + 반례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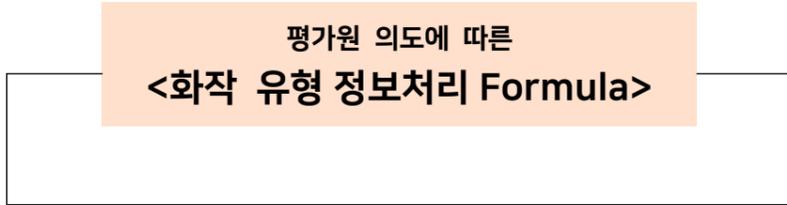
[A]의 주장 + 반례 에 대한 반박. 정확. 정답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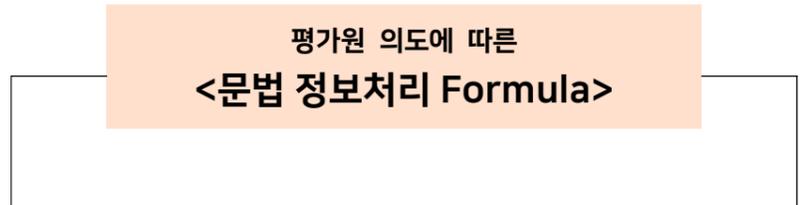
4.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법 작문 세부 유형별 사고의 흐름과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구조 유형
- ② 화법에서 (자료)의 성격-내용-구조 연결
- ③ 신유형 - 결국 주제 구조
- ④ 비판 유형
- ⑤ 고쳐쓰기
- ⑥ 표현하기
- ⑦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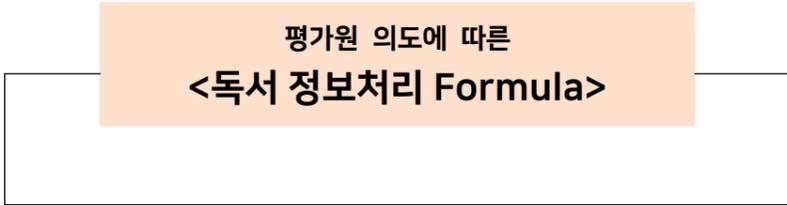
- ① 주제+구조 유형  
지문의 독서 정보 구조 처리.  
지문 내용 자체는 이슈 없음. 전형적임.  
구조는 매우 중요.
- ② 화법에서 (자료)의 성격-내용-구조 연결  
특히 팔호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관련된 내용-구조는 매우 중요.
- ③ 신유형 - 결국 주제 구조  
신유형 역시 결국은 주제 구조로 킬면, 의도 설계가 노골적으로 보임
- ④ 비판 유형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 서술 + 상대방이 언급한 범주에 대한 비판
- ⑤ 고쳐쓰기  
글의 구성원리 관련 내용 + 문법적 사항 디테일하게 분석
- ⑥ 표현하기  
내용+표현+형식 조건 하나 하나 확인 정보 확인 독해(내용일치 ok)
- ⑦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생성  
지문의 주제에 관련하여, 찬/반/가치 중립을 나누어 구조 잡을 것

5.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문법의 유의사항과 세부 유형별 사고의 흐름과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 ① 문법 교육의 목표 :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 ② 문법-국어사 학습의 이유 : 중세국어를 통해, 현대 국어의 논리적-통시적 설명을 위함.
- ③ 내신 수준의 평이한 개념 적용 유형
- ④ 독서 통합형
- ⑤ 국어사  
암기는 9개 이상을 묻지 않음. 즉, 암기 문항이 아니라 비교 추론 문항임.
- ⑥ 킬러  
①의 문법 교육의 목표를 정확히 암기 바람. 또한 확인 바람. 이와 관련해서는 문법원론 / 파이널 문법 보충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해당 자료 참조 바람.  
  
단, 리허설 교재의 목적을 위해 일부 대표 유형만 신고 설명 예정.

6.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
  - ② 미시 정보 구조 - 문장 구조  
Syntax 적용
  - ③ 거시 정보 구조 - 문장+문장, 문단, 글, 글+글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글의 전개방식 - 정태, 동태, 논리 / 시간 / 공간
  - ④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특성 파악 / 활용  
원리, 인과, 수식, 표, 그래프, 그림,  
독립정보군집 - 독립 문항,
  - ⑤ 소재별 접근  
철학-논리-법-과학기술-경제로 이어지는 킬러와  
예술로 이어지는 평가원의 mind set  
인문-사회과학으로 그린 큰 그림.
- 읽고 (독) 이해 (해)  
즉, 독해 차원에서 '글'을 바라보는 근-현대적인 관점에서,
- 어휘-개념능력  
사실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적용-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능력, 즉 '사고'력 측정 시험으로...  
이제는 융복합, 4차 산업혁명'행' 능력을 측정,  
인재를 선발/평가하는 시험으로...
- '글'이란 문자(한글, 알파벳)가 아니라  
'Text'  
그래서 단순히  
주제 통합적 독서로 표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상호텍스트성'으로 잡는 것임.

그렇다면 텍스트에 대한 정의는?

**텍스트 = 문자는 물론, 모든 매체 정보**

따라서, '국어'인데 시각자료, 그래프, 도표, 그림, 동영상 등등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출제/정보처리를 요구하고 사 고의 흐름을 잡는 것임.

우선 주제에 대하여.  
'글'이란 주제 전달 목적을 위해서 존재함.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류의 존재 목적을 DNA의 전달로 보듯이, '글'은 글쓴 사람의 생각-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가장 큼. 문체는,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과 일방적인 정보전달은 당연히 왜곡을 가져오게 됨. 하지만, 이미 평가원에서는 우리와 상당 부분의 mind set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그것이 ebs와 기출임. 문체는 그 기출과 ebs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 역시도 원문서-자료 정독을 하다 보면 잡히는 부분임. 다른 방법으로 극복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그 학생의 피지컬이 어마어마해서 될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정보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임. 우선 상향식 독서, 즉, 단어 차원에서 의미가 전달되면서, 문장 수준의 완결된 의미전달 체계를 기준으로 의미처리를 하게 됨. 문체는 문장 자체를 곱씹는다고 의미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어휘력, 배경지식, 경험, 문장 구조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처리한 결과임. 초인지-메타인지-상위인지 능력은 0.1% 정도가 가지고 있음. 바꿔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능관련 정보의 99.9%에 가까운 수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 솔직히 수능 기준 상위 0.1% 속했던 사람이 지금 강사라는 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보처리가 안 된다면, 어휘의 의미, ebs와 기출 연계된 내용, 문장 수준의 구조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시 다시피, 문장 수준의 구조 처리를 통한 내용 이해는 시간을 어마 어마하게 소진하여, 절대로 80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접근법이 됨.

따라서, 철저하게 글의 구성원리, 즉,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배운 구조를 활용, 정보가치를 판단하여, 주제를 좁히고, 주제 중심의 내용이해와 구조처리를 가져가야함.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80분이라는 시간을 근거하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최대한 주제 집중하여 A-B급 차원의 정보 처리가 의도 됨. 단, B급 정보 역시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표그리기, 그래프 처리, 그림 그리기, 도식화 등의 방식으로 정보 후처리를 진행할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 단계성, 강조성, 응집성, 완결성 바탕으로 구조 처리를 진행
- ②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임
- ③ 의도-설계 파악 + 하향식으로 정보처리하여 결국 이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한 내용과 구조 처리 필수
- ④ 이렇게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지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처리가 되어 있고, 결국 정답 선지가 매우 쉽게 특정되는 사고 흐름임.

올해 6/9평 중 주요 지문에 적용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

7.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문학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문학 정보처리 Formula>**

- ❶ 비문학 : 이성 처리 vs 문학 : 감정 정보처리
  - ❷ 정답스펙트럼, 즉, 전통적 인식론이 아닌, **베이즈주의 논리**
  - ❸ 이성과 감정의 차이, 즉 칸트의 미적 감수성 **문학적 관습과 평가원의 문학에 대한 mind set**
  - ❹ 장르별 접근틀 암기/적용/체화/실전몰입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 희곡시나리오  
+비평교육  
+이론교육  
장르별 상황별 대처법
  - ❺ 킬러 유형  
서사 장르  
- ❶ 20-6평-25번 큰잔치, 19-수능-43번과 같이...  
대화의 주제 파악  
  
- ❷ 20-6평-25번 큰잔치, 19-수능-43번과 같이...  
미시 문장구조를 바탕으로 의미 파악  
  
- ❸ 표면적 정보 근거, 이면적 정보 파악  
  
- ❹ 장면 vs 장면으로 중심서사-갈등 파악
- 고전 시가
- 너무나 전형적인 주제
  - 속발음, 소리나는 대로, 한자어 문맥 추론,
  - 너무나 전형적일 수 밖에 없는 주제 파악 제발!

현대시

-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은 최근의 주제들
- 수업 바탕 공감 능력 잡자

지문 근거 단서 잡고 가는 것이 잘 되는 피지컬 ㅇㅋ 하지만, 주제 중심의 내용 중심의 처리가 핵심임을 다시 확인 필요.

평가원 의도에 따른  
**<서정 정보처리 Formula>**

- ❶ 주제 = 정서 = 감정,느낌,생각,사상,태도,자세,반응  
↳ 분위기/상황
- ❷ 미시 정보 구조 = 문장 구조  
S, V, O, C, Ad, 반복 강조 수식어 파악
- ❸ 거시 정보 구조 = 촉발 - 전환/유지 - 집약
- ❹ 문학적 관습에 따른 전형적 정보처리
- ❺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개념을 적용해야만 정답이 특정되는 확률은 13% 이내이므로, 주제 집중하여 정보 처리, 특정 후 집중하여 해당 선지 판단하는 습관으로 시간, 정확성, 피로도, 모든 것 이득 볼 것.

평가원 의도에 따른  
**<고전시가 정보처리 Formula>**

- ❶ 전형적 주제. 나라면 저 시절에, 왜 저렇게 표현??
- ❷ 소리나는 대로 속발음, 한자어, 문맥 추론
- ❸ 현대시 접근법 base

전형적 주제가 95% 이상임. 오개념 논란 같은 바보 같은 일 벌어지지 않도록, 고전 작품 해석법을 익혀, 연계/비연계 모두에 대한 완성형 학습을 해갈 것

평가원 의도에 따른  
<서사 장르 정보처리 Formula>

- ① 주제 = 서사 줄거리
- ② 사건, 갈등, 장면 파악 ⇐ 분위기
- ③ 인물=성격 + 내면 심리 파악
- ④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 출제

평가원 의도에 따른  
<비평 정보처리 Formula>

- ① 비평문 정보처리는 문학 개념 분석 우선
- ② 비평문 근거 > 지문 근거 > 보기 근거
- ③ 필요시 독서 구조 처리
- ④ 작품 해석의 최우선 근거 비평문

비평교육을 중시한 현 출제 교수 세대에 맞게, 강조 출제되고 있는 흐름. 비평문 분석은 지금까지 학습한 문학 개념을 적용하되, 최근 평가원에서 정립한 개념들이 녹아 있는 관계로, 일반적인 학습으로 습득한 개념어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이번 9평 오답률 1등 문항이 성립됨.(단,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중시한 개념임)

관련한 해설과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지만, 17이후 기출을 한 번 정리한 원론-수업 필기로 한 번 정리 후 활용할 것.

평가원 의도에 따른  
<희곡/시나리오 정보처리 Formula>

- ① 서사장르 접근법 기반
- ② 장면에 대한 상상
- ③ 희곡/시나리오의 특징 파악

장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하는 장르적 특성상, 장면 상상이 기본이며, 장면 하나 하나가 이면적 의미 및 함축적 의미를 가질 경우 역시 출제 초점.

장면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보밀도가 높은 줄거리, 서술, 지시문등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평가원 의도에 따른  
<수필 정보처리 Formula>

- ① 비문학, 서사, 서정 특성 모두
- ② 깨달음-글쓴이 생각이 주제 ⇨ 특히 마지막 부분흐름

깨달음을 표현하는 장르인 만큼 글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집중. 서정, 서사, 독서 특성 모두 존재.

8.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의 소재특성에 따른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분류	과학기술	법	경제	논리	철학	예술	기타	유익+ ebs/기출연계			
								원점수	표준점수		
학년도	제재						만점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017 6월	퍼셉트론 - 인공지능경망	유비 논증		음악의 아름다움			141	131 (-10)	124 (-7)	90	83 (-7)
	과학기술 - AI - 머신러닝	논리-논증구조		예술	과학기술						
2017 9월	콘크리트와 건축물의 특성	카르노 이론과 열효율		사단법인 + 주식회사			139	130 (-9)	124 (-6)	90	83 (-7)
	과학기술	예술	과학기술	철학 사상	논리	논증구조					
2017 수능	논리실증.포퍼vs과인총체주의	탄수화물의 소화		공정한보험		고지의무	139	130 (-9)	124 (-6)	92	86 (-6)
	철학 - 지식의분류	논리	과학기술	경제	법						
2018 6월	수기치인	통화 정책		DNS 스푸핑			143	133 (-10)	125 (-8)	89	80 (-9)
	유학-이기론-철학	법	경제	과학기술							
2018 9월	하이퍼 리얼리즘	고전-양자역학		고전비고전논리		집합 의례	134	128 (-6)	123 (-5)	93	88 (-5)
	예술	과학기술	논리		종교-철학						
2018 수능	목적론	오버슈팅	정책수단특성	디지털 통신 시스템, 부호화			134	128 (-6)	123 (-5)	94	89 (-5)
	철학	논리논증	경제	행정학 - 사회과학	과학기술						
2019 6월	서양의학의 동양전래와 수용 (feat. 근대화. 과정. 동양의 가능성)	계약자유원칙과 비례원칙		LFA 키트			140	132 (-8)	125 (-7)	91	84 (-7)
	철학	법 - 3법 - 법의 기본 원리		과학기술							
2019 9월	CDS 프리미엄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자본주의vs사회주의			129	127 (-2)	123 (-4)	97	92 (-5)
	경제	과학기술		철학	예술						
2019 수능	법률행위	서양과 동양의 우주론 (feat. 근대화. 결과. 동양명량)		가능세계			150	132 (-18)	125 (-7)	84	78 (-6)
	법 - 권리/의무 - 법률행위	철학	과학기술 양념 1문제	논리							
2020 6월	에피쿠로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공진화			144	132 (-12)	125 (-7)	87	80 (-7)
	철학-인간의 시작(결정vs자유)	경제		과학기술+철학양념							
2020 9월	미시사 연구 사료로서 역사	소유와 점유		스마트폰 위치 추정기술			139	130 (-9)	124 (-6)	90	83 (-7)
	사회과학	논증구조	법 - 거래와 소유 개념		과학 기술						
2020 수능	전통적 인식론vs베이지주의	공진화 -이식과 레트로 바이러스		국제법-BIS 비율			140	131 (-9)	125 (-6)	91	85 (-6)
	논리-논증구조	과학기술		법	경제						
2021 6월	과거제 - 상호텍스트성	손떨림 보정		ICT 다국적 기업			139	132 (-7)	126 (-6)	92	85 (-7)
	사회과학	논증구조	과학기술	법	과학 기술	경제					
2021 9월	현대 예술론, 비평론	행정입법		방역원리			138	129 (-9)	123 (-6)	90	84 (-6)
	예술	철학	논증구조	법	과학 기술	과학기술					
2022 예비	동일론 vs 이원론	음악의 기능과 본질 -상호텍스트성		충전지			139.31	130.46 (-9)	124.31 (-6)	90.77	84.31
	철학	논증구조	예술		과학기술						

1) 위의 표 양식 아이디어 <https://orbi.kr/00032241642> 참고 하여 제작

(가)

위의 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점수파트를 보자. 2017부터 시험이 변한다는 것은 수험생들의 당황함에 이어 점수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2017 시험의 표점은 141-139-139 수준으로 형성된다. 물론 이는 전체 표점 평균이 139점 대라는 것에 비교하면 특이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6까지의 기출과 2018기출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이다. 즉, 바뀐 시험에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어느정도의 적응과 난이도 이유로 2018학년도 수능 및 2019학년도 9평에서는 소폭-대폭 점수하락이 있었으나, 2019수능에서는 역대급 표점이 형성된다. (말 그대로 역대급, 역대 표점 1등이며 만점자 148명)

그리고 그 흐름은 계속되어, 144-139-140으로 소폭 하락하긴 하지만, 만점자 숫자는 2020학년도 6평에서 65명이 된다. 대치동 만점자 200명 마감반에 단 한명도 없는 숫자.

더 중요한 부분은 만점-1등급 컷의 차이와 1등급-2등급의 차이이다. 백분위 100점과 96점 사이의 표점은 평균적으로 9점 차이, 반면 백분위 96점과 89점은 평균적으로 6점 차이. 즉, 최상위권에서 1점 1점이 매우 큰 변별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등급이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최상위권에서 1점 1점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의 강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능 국어는 완결성 있는 학습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자의적' 학습에 국한되고 있다. 물론, 시중의 대부분의 홍보되는 교재/자료/수업이 수능의 본질, 평가원 시험의 본질 보다는 강사/저자 개인의 논리와 접근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진 신뢰 자본의 손실문제와 비례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나)

이어지는 소재별 특징을 주목하자. 우선 과학기술은 매 시험 출제되는 소재로서, 원리, 수식, 그래프, 도표, 그림, 구조도, 표 등에 대한 자료 해석, 때로는 작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 지문들의 흐름을 잡으며, 과학기술 정보만의 특성에 맞는 정보처리 연습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문제는 '논리'인데, 사실 '논리'적 완결성은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 이유는, 유일하게 100% 참인 명제-논리는 연역법이 유일한데, 연역법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는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사실 연역법은 기존의 인류의 사상과 역사를 단단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보나 창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그 '논리' 역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히 따질 수 있는 것은 고전 논리, 전통적 논리에 속한다. 최근의 논리는,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도 있으며, 확률로서 참/거짓에 가까운 정도를 판별하는 유용한 방법이나, 수학-통계적 방법으로도 논리적 사고의 근거와 방법을 고안해냈다.

즉, 지문에 ABC라는 정보를 찾아, 5번 선지의 ABC내용이 있으니 정답! 과 같은 초등~고1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수능 수준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학습 능력과 지능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이다. 생각 좀 해보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비롯, 수 많은 박사 학위 논문들은 기존에 없던 지식을 새로이 만들어 낸 것이다. 현존하는 인류에게 미지의 지식이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마 어마한 논리적 단서와 근거가 필요하다. 문제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 big data 시대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이전에 존재했던 만큼의 정보량이 새로 생겨난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판단하는 것은 우선 시간 차원에서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정보의 불충분으로 완결성 있는 판단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80분 시간 제한이 있는 time attack을 전제로 하는 수능 시험에서는 주된 측정 대상이 아니다.

(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우선 전체 지문은 글의 구성원리에 따라,

- ① 1단락~2단락 초반부 Topic Setting 확인
  - ② 정보의 관계-구조 처리로 정보가치 판단하여 주제 집중
  - ③ 위의 과정으로 구조처리는 물론,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여, 의도와 설계에 따른 정보 처리
  - ④ 그렇게 출제자가 의도한 사고 흐름을 잡고 문항/선지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일 수 밖에 없다.
- 정리하면

- ① 구조 처리
- ② 정보가치 판단
- ③ 주제 중심의 상향식 독서 + 하향식 독서
- ④ 이 과정에서 의도/설계에 따른 사고 흐름 잡기
- ⑤ 사고 흐름을 잡고 문제-선지로 돌입하면 80% 내외의 정보처리
- ⑥ 시간에 따라 100% 특정하기 위한 지문발췌독-정답 특성의 사고 흐름을 잘 기억하기 바람.

(라)

과학기술은 앞서 말했듯이, 원리, 수식, 그래프, 도표, 그림, 구조도, 표 등에 대한 자료 해석, 때로는 작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 ① 정보 완결성 부족
- ② 정보 논리 부족
- ③ 출제 과정에서, 생략/왜곡 발생으로 정보처리 불가능한 정보
- ④ 그러면서도 정보량은 폭발

해결방법은

- ①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
- ② 주제-구조-정보가치-의도-설계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기 방식의 이해가 아니라
- ③ 글쓴 사람의 의도 바탕의 이해 + paraphrase를 통한 상호작용식 독서 모형으로 정보처리가 필수

(마)

법학지문은 출제 목표가

- ① 학생들의 앞으로 실생활 관련
  - ② 법체계 확립을 위한 배경 세팅
  - ③ 과학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법이 직면한 문제를 초점두고 출제하기 때문에
- ① 실생활-하향식-상황 상상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 ② 헌-민-형 3법 체계를 비롯, 3권분립, 의무-권리 대응쌍, 논리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처리 공식과 지식이 필요하고
  - ③ 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④ 기존 수업-필기-원론서 바탕 연습-적용으로 이어간다.
  - ⑤ 특히 구조적 특징은, 초반부 도입(예시/문제제기/질문)바탕 원리(법조항 및 원칙)세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P-S 구조 반복

(바)

경제지문은 출제 목표가 학생들의 경제 문맹을 해결해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철학 바탕으로,

미시적으로는 기업-금융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원리와 경제위기에 따른 대처에 다루는 흐름이고, 이는 한 지문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출이 여러 해 + ebs 연계를 염두하고 출제된다. 기출된 평가원 지문과, 어휘, ebs는 시험범위다. 제발 '배경지식 없어도 된다'와 같은 근거 없는 통념에 휘둘리지 말자. 시험 조지면 책임은 본인이 진다. 능지 순, 학습 능력, 제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 ❶ 기출/ebs 시험범위를 전제하므로, 기출 연결 사고/학습이 필수
- ❷ 인과-원리 중심의 이해-처리가 필수이며, 모르는 어휘는 사전 찾아 찾아라 줘. (영어 단어 외우듯이)
- ❸ 제공된 원론서 흐름 잡아라.

(사)

논리에 대해 우리의 통념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예를들면, 1994학년도 수능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신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당시 수능 틀을 만드시던 교수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교수님께서 이미 고인이 되신지 10년이 넘었다. 그들의 업적과 유산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후학들의 역할이자 의무이고, 선배들의 의지이다.

더군다나, 언어영역에서 국어영역으로의 전환은 시험의 근간이 바뀌는 사건으로서, 2014학년도 개정수능부터 개편된 현재의 수능 국어영역 시험은, 내신 국어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은 물론, 기존의 언어영역과도 매우 다르다. 하지만 아직도, 논리학-언어학-국어국문학 관점에서 시험을 바라보기도, 때때로, 물리학자들까지도 그 영역을 침범한다.

수능 국어영역 시험의 성격은 국어과 교육과정, 즉,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자들의 집단이 알아야 오메가이다. 가감없이,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사-석사-박사-평가원 임용-전국의 사대/교대로 이어지는 집단 지성과 학자 집단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국어교육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그 변화는 kiss 2.0 riss 2.0과 함께 급변한다. 그 시점이 바로 2010년 전후이며, 그 가장 변화가 큰 10년을 우리는 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연고대, 의대, 치대 학생들 데려다 놓고 시험쳐도 제일 어렵게 느끼는 시험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수천년이 지나도, 아니 우주 어디에서도 2차원 평면에서는 항상 참인 피타고라스 정리이지만, 정보처리 능력에 관련된 과목인 국어는, 정보의 성격이 바뀌는, 인류의 성격이 바뀌는 지금 이 시대에 바뀔 수 밖에 없다. 마치 개화기 조선에, 상투 자르지 않고 버티는 척사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들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신채호의 아와 비아와의 투쟁에서 보듯, 모든 존재는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그 영향력을 외부에 끼치기도, 또 외부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하기도 해야한다. 애초에 인간은 진화의 역사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 도대체 구시대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해 그 문제는 2019 수능에서 터진다. 가능세계. 복수정답 시비. 평가원은 정확히 공문서를 통해 대답한다. ebs 연계지문이며, 배경지식이 전제되어 있으니, 지문에만 근거해서 정오 판별하는 기존의 언어영역 접근법은 도대체 왜 쓰는지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마치 원시-중세 봉건 수준의 사고에 대해 뭐가 틀렸는지 설명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면, 논리란, 근거만 있으면 어떤 주장이라도 가능하고, 사실 출제를 하는 집단은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기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지금의 시민독재 시대에 시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중이 시험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면, 서울대를 들어갈 정도의 머리에, 학사 석사 박사 최소 10년 이상, 평가원 연구를 비롯, 20대 이후 수십년을, 평생을 국어

교육 연구에 생을 다한 그들의 주장을 들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설득은 될까?

정리하면

'논리' 지문은 평가원 mind set을 기반한다.

따라서, 평가원 mind set, 즉, 평가원이 생각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봐야하며, 역시 원론서 바탕 사고 흐름을 잡아두었으니 자료를 활용바란다.

논리학 지문 처리는

- ❶ 주장+근거
- ❷ 도입/배경/전제 + 주장 + 근거 + 예시 + 예상가능 반론 + 재반박의 기본적인 논증구조 분석이 기본
- ❸ 명료화, 도식화를 바탕으로 정보간의 관계 파악이 핵심

논리라는 것 자체가

정보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아니라

정보간의 구조-관계 파악이 핵심적인 역량이 된다.

(아)

사실 철학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체감 난이도 상 중요 순위가 밀린다. 하지만, 신학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사상사는,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이른다. 즉, 인간에 대한 학문, 철학이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철학적 정보처리는 역시나 그 지식이 근간에 있어야만 한다. 그 지식의 근간은, 동양-이기론, 서양-형이상학+자연과학 사고 흐름이, 신학-종교학에서 시작하여, 자연과학에 이르는 전반 영역을 관통한다.

문제는 과거의 과학 기술은, 과학기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설(設), 즉, '썰 푼다'의 '썰'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칼로리 이론과 같은, 천동설 같은 주장들. 그 이해가 중요할까, 그 흐름을 통해 지금의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배경과, 지금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이 중요할까?

모순이 밝혀져 이미 거짓인 과거의 과학기술을 이해하는데 힘을 빼지 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과거 역사에서 배워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다.

- ❶ 동양 철학 - 유학 - 이기론
- ❷ 서양 철학 - 형이상학 - 자연과학
- ❸ 서양의 근대 철학 ⇨ 동양 전래 ⇨ 수용과 발전 ⇨ 쇄국과 멸망의 사고 흐름을 바탕으로
- ❹ 논증구조
- ❺ 사상사의 전개 및 비교 대조에 초점을 두고 정보처리가 필수적임

(자)

예술

모든 평가원 수능 출제 교수들은 문학 교육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mind set이 정확히 확립되어 있다.

모든 예술 정보를 내용 + 형식으로 처리하며

이는 비문학은 물론, 화작문, 문학, 비평지문의 근간이 된다.

- ❶ 정보 구조는 항상 내용 vs 형식으로. 난이도가 급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차)

기타

사회과학을 비롯한 지문들인데, 일반적으로는 논증구조 분석을 위한 소재들로, 2020-9월 미시사 연구 자료로서 영화, 2021-6월 과거제에 대한 상호텍스트성 지문이다. 논증구조를 빠르게 잡지 않으면, 자칫 정보량에 질식 할 수 있으니, 논증구조를 철저하게 잡도록 집중한다.

9.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의 소재특성에 따른 EBS 연계 흐름은 Grand Final I 자료로 대체한다.

비문학 소재 및 문학 소재 출제 관련성 및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한 장 파이널, 그리고 그 이후 제공되는 마지막 짝기 지문에서 제공될 예정.

짝기 지문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통계적 근거
- ② 현재 수능 출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교수-집단 지성의 관심
- ③ 올해 출제 교수로 선발되신(추정) 교수님들의 논문
- ④ 수능 출제 흐름, 귀납적, 연역적 접근

10.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의 적용 상세는 올해 6-9평에서 가장 이슈가 된 법률 지문을 대표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의 지문 구조를 배운대로 철저하게 분석한다.  
다시 한 번 정리 한다.

- ① 주제 흐름
- ② 구조/관계
- ③ 의도/설계
- ④ 정보가치 판단
- ⑤ 처리 가능 정보 집중
- ⑥ 출제자 유도하는 사고 흐름 잡기
- ⑦ 자연스레 보이는 정답 선지 80% 확신
- ⑧ 시간 가능 + 필요시 문제 풀이에서  
= 정보 후처리 + 발췌독 + 100% 확신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6평)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31. <보기>는 읽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33.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6평)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해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A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신역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정의

특허권? 다 아는건데?  
주제 도입이라는 생각!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영업비밀, 법으로 보호?  
특허권-법률상권리  
영업비밀-법으로 보호  
공통된 흐름!

결국은? Topic Setting!  
과세 문제!  
P : 과세 문제  
S : 디지털세 도입

디지털 세 정의  
그래서??  
우려.. 이유가?  
법인세? 정의?  
그래서??

결국은? Topic Setting!  
과세 문제!  
C : 법인세 편법  
P : 법인세 과세 문제  
S : 디지털세 도입!  
원리 이해 안 되면  
예시 이해

결과, 정보가치업 집중

법률지문 특징  
예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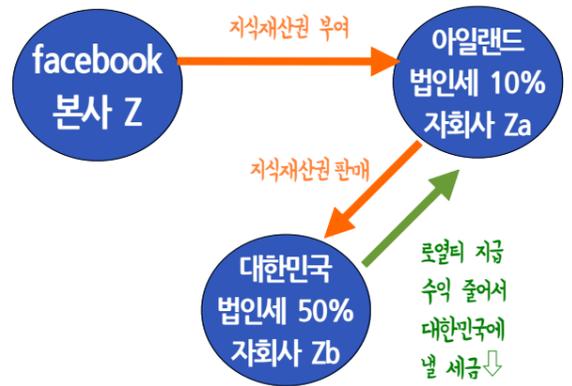
3단락 원리 이해

글로벌 회사 Z사

- ① 자회사 Za를 A국(법인세↓)에 세움
- ② B국(법인세↑)에서 영업 중인 자회사 Zb의 수입을
- ③ 자회사 Za에 로열티로 지출
- ④ 자회사 Zb의 수입은 줄어듦, 수입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는 줄임↓

3단락 원리 이해 도식화

가정. 아일랜드 법인세10%, 대한민국/미국 법인세 50%



원래대로면,

대한민국에서 10조 수익 → 50% 법인세 → 5조 세금

하지만, ①방법을 쓰면

대한민국에서 10조 수익  
→ 9조를 아일랜드 자회사로 로열티 지급  
→ 남은 수익 1조 → 법인세 50% → 5천억 세금  
→ 세금 90% 절감. 즉 5조 낼 세금을 5천억만 지출

우리나라는 득 될 것 없어서 디지털 세 부과  
반면, 미국은 글로벌 기업이 잘 되어야 결국 국가 이득  
그래서 세수가 줄어도 함부로 디지털 세 부과 못함

31번 문항설계

4단락 원리 이해 표처리

유인비용 : 지식재산 개발 유인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접근비용 : 일반이 지식재산 접근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최적수준 : 손해의 합이 최소 = 유인비용+접근비용↓

아래의 표는, 구조 처리로 간단해짐. 32번 문항설계

국민소득 구분	국민소득수	추론-문항설계
일정수준 이상	특허보호↑	
일정수준 이하 ~가장낮은수준이상	특허보호↓	
가장낮은수준 이하	특허보호↑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1단락 소주제 및 전체 주제 세팅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1단락 구조+주제

주제와 구조가 절차? 정의를 바탕으로 공통점으로 주제 도입이다? 아니 오답 확률 80% 높고, 여기 좁히고 발췌! 역시 정답! 100%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2단락 구조+주제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3단락 구조+주제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4단락 구조+주제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단락 핵심 원리 이해 P-S 흐름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정답!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만 나라 빼돌리지 말고!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o 과제: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법인세율 ↑ = 이윤비율 ↓ 지문 내용 연결 >
지문 내용과 같은 맥락 = 지문 주장 근거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선지 하나 하나 논리 분석 nono. 그럴 시간 없어! 의도도 아님!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들이 꿈수쳐서 세금을 덜 내냐? 더 내라! = 디지털세 도입

정답 4번! 팍!

제발 쓸데 없는 정보 어그로 nono. 정보가치 높은 것 집중.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유인비용 : 지식재산 개발 유인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유인비용 크게 문제 P = 유인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높여 S
= 특허보호 높여서 특허 개발자 이득줘라 그래야 유인 됨 S

접근비용 : 일반이 지식재산 접근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접근비용 크게 문제 P = 접근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서 일반이 접근 쉽게 해 S

최적수준 : 손해의 합이 최소 = 유인비용+접근비용

Table with 3 columns: 국민소득 구분, 국민소득수, 추론-문항설계. Rows include '일정수준 이상', '일정수준 이하 ~가장낮은수준이상', '가장낮은수준 이하' and their corresponding '특허보호' and '추론' values.

주제 집중, 해당되는 선지 보면?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특허 보호를 해야 되는 나라에서, 왜 특허보호를 과하게 높다고 판단하냐... 높일수록 좋은 나란데?! 바로 정답 3번 아옴

접근비용이 높다 : 일반인이 특허 때문에 비용지출이 커서 접근이 어렵다 = 손해다

해법은 그 비용을 낮추는 거다 = 그러면 손해, 즉 접근비용이 줄어 아지...

정리해주면...

**유인비용** : 지식재산 개발 유인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유인비용 크게 문제 P = 유인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높여 S  
 = 특허보호 높여서 특허 개발자 이득줘라 그래야 유인 됨 S

**접근비용** : 일반이 지식재산 접근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접근비용 크게 문제 P = 접근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서 일반이 접근 쉽게 해 S

국민소득 구분	국민소득수	추론-문항설계
일정수준 이상	특허보호↑	특허-유인 저해가 손해 = 유인비용 P유인비용↑ 크게 문제 S유인비용↓ 낮추고 S접근비용↑ 높이고 그래서 특허보호↑ 특허개발유인↑
일정수준 이하 ~가장낮은수준이상	특허보호↓	여기는 모두 반대 방향
가장낮은수준 이하	특허보호↑	특허-유인 저해가 손해 = 유인비용 P유인비용↑ 크게 문제 S유인비용↓ 낮추고 S접근비용↑ 높이고 그래서 특허보호↑ 특허개발유인↑

줄글로만 처리하면 멘탈 터짐...  
 본인 피지컬에 맞는 방법을 씀시다.  
 표그려, 정보관계, 구조 처리하면 깔끔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일단 이것부터 틀리죠?  
 S국은, 특허보호를 높일수록 좋은 나란데,  
 과하다고 판단 할 리가 없고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  
 당연히 특허 유인이 안 되고  
 유인비용 높아지고  
 접근비용은 낮아짐  
 이것도 인과를 반대로 잡네?

정답 단서를 두 개나 씀  
 주제 잡고 털어야지  
 선지 하나 하나 정오 판별하면 내년으로 타임 슬립...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굳이~~~~~ 설명하면..  
 ICT 주도적 국가 = 지식재산 보호가 이득  
 ICT를 주도하고 있으니 당연. 하향식 터는게 빠르고 편해.  
 언제 근거 잡으실?? 혼자 수능 80분이 아니라 8시간 치심??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특허 보호 해줘야 한 대니까.  
 특허 보호 안 해줘서 생기는 손해가 크겠지.  
 주제 원리 잡으면 바로 보임.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점점 높아진다 = 중간단계 국가  
 따라서 특허 보호 덜 하는게 이득

점점 더 높아지면? = 일정수준 이상 국가.  
 다시 특허 보호 더 하는게 이득.

그러니 낮아졌다가 높아짐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지식재산 보호 높임  
 = 특허 유인 높임 = 유인비용(손해) 낮아짐  
 = 특허 접근 안 됨 = 접근비용(손해) 높아짐  
 정확/편안

3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2단락 주제+구조

결국 세금 덜 내는게 문제.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그 방법은 법인세 낮은 A국 자회사에 이윤 몰고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정답 3번 딱!

법인세 높은 B국 자회사 이윤 줄여서 결국 세금 덜 낸다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수능 국어 문제 풀이는 선지 하나 하나 독립적 정오 판별 아닙니다.

하나의 스토리 텔링과 같은 흐름.  
제어에에에에에발.

개화기 조선  
쇄국정책-전근대적 사상 고집 그만  
-과거의 언어영역 접근법 그만

개화하세요  
계몽하세요  
4차 산업 혁명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하세요.

(하)

독서 사고 흐름 기억하자.

- ① 1~2단락 세팅된 주제 흐름
- ② 정보간의 구조/관계
- ③ 출제자의 의도/설계
- ④ 정보가치 판단
- ⑤ 처리 가능 정보 집중
- ⑥ 출제자가 유도하는 사고 흐름 잡기
- ⑦ 자연스레 보이는 정답 선지 80% 확신
- ⑧ 시간 가능 + 필요시 문제 풀이에서  
= 정보 후처리 + 발췌독 + 100% 확신
- ⑨ 유형별 접근 틀 확립

ex)

독립 정보 군집 문항(4~6개 정보 나열) = 독립 문항 발췌독

원리 이해 = 보기/선지 적용 유형

보기와 지문이 위계 동일 = 비교 대조 표그리기

필요시 도식화

필요시 그리기

필요시 표 그리기

필요시 수식 정리

필요시 인과 관계 정리

하지만 결국에는 주제 + 구조 집중임

이어지는 9평 법률 지문 연습니다.  
법률지문의 특징 바탕 구조 분석 적용!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9평)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나타내기
- ② ㉡ : 드러내어
- ③ ㉢ : 헤아릴
- ④ ㉣ : 마주하기
- ⑤ ㉣ : 달라진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9평)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 적절하다.

1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은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2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3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절차**

**도입부의 의도와 설계를 봅시다.**  
**행정규제, 근거는 국회법률.**  
**구조 잡고,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세요**

**국회가 아니라? 반복되는 말은?**  
**+하향식...아!**  
**원칙 : 삼권분립**  
**그런데, 행정부가 입법? 예지??**  
**드론? 예시같고..아! 왜-이유!**  
**C1, C2, C3+하향식...아!**  
**역시 1끝-2첫 T.S**  
**법률지문 - 하향식 필수!**  
**역시 1끝-2첫 T.S 3가지!**  
**PS 3권분립 위배. 헌법근거로 해소!**

**근거 주체 분류 절차**  
**정당화 = 근거**  
**근거 ⇨ 범위 확정 원칙**  
**P : 근거-범위 넘으면 문제겠군!**  
**예측? 아마 근거 ⇨ 범위 ⇨ 예측**

**그런데**  
**P 1단락+6평 ICT 상황은?**  
**S 범위를 좀 더 넓혀주면 해결!**

**다시 문제 P 범위가 넓으면? 어구 의미 범위 침범은?**  
**S 효력 없음!**  
**결국 근거/범위가 많은 분량 =2단락 정보 중 가장 정보가치슈!**

**분류 절차**  
**법률위임. 즉, 근거법률 없음?**  
**역시, 근거와 범위가 중요!**  
**그러나? 뒷 내용이 잘 안잡힘..**  
**해결은 구조로! 역시, 법 지문!구조 예외!**  
**6평-1단락-2단락 내용 동일인데?**  
**그렇다면**  
**P.C : ICT슈 대응 필요**  
**E.S : 범위 넓혀줌!**  
**이게 또 하나의 주제겠군!**

**근거 주체**  
**계속 반복되는 말이...**  
**결국 근거? 어구의미?**  
**역시 근거 ⇨ 범위가 중요하군!**  
**결국 근거/범위가 많은 분량 =2단락+4단락 가장 정보가치슈!**

**6평... 기출 연계!**  
**P : ICT 기업 S : 디지털세**

**P : 드론같이 ICT 변화**  
**C1, C2, C3의 상황 대처?**  
**S : 국회(입법부) < 행정부!**

**그러면 문제는?**  
**P : 원칙인 삼권분립 위배!**  
**그러면 이어지는 흐름은 그 설명?!**

**주제 정리**

1. 기출 연계 6평에서 이어지는  
**C 과학기술 발달 + 사회변화**  
**E.P 입법부 적용 어려움**  
**ex) 드론, 전동킥보드**  
**S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 대신!**

2.  
**P 3권 분립 문제**  
**S 헌법-국회 법률 근거 하면 됨!**

설계와 의도 파악부터

시력문제, 초등학생도 시간만 있어도 푸는 문제 내서 뭐할라고?  
세부 내용 일치 문제 아니라 했음...

제발. 백분위 96 근처도 못 감. 스스로 인생 조지지 말자.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정보 후 처리가 필요하겠구나!

표 그려야 겠구나! 판단해야지!

딱 봐도 비교-대조- 그런데 동일, 모두, 모두, 모두... 전부다 공통점 찾으라는거네? 그러네? 생각해보니

	2단락 위임명령	3단락 행정규칙	4단락 조례
근거			
범위			
주체			
종류/분류			
절차			

이 구조로 처리가 되었네?

구조 처리 하면 되겠구나! 해야겠나요?

아니면

이걸 하나 하나 발췌독.....

능지가...

학습센스가...

공부머리가...

네... 안 말합니다.

아니 못 말합니다..

하고 싶은 해야지 뭐.

아 잠만... 근데 선지 설계가 5번만 뭔가 다른데? 나머지는 표그려 세 부내용같은데..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응? 주젠데?? 에이 설마... 정답??... 정답!

주제 정리

1. 기출 연계 6평에서 이어지는  
C 과학기술 발달 + 사회변화  
E.P 입법부 적용 어려움 - S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 대신!  
ex) 드론, 전동킥보드

2. P 3권 분립 문제 - S 헌법-국회 법률 근거 하면 됨!

수도 없이 수업에서 말했죠?

주제 + 구조 집중하라고

쓸데 없는 정보까지 낮은데 어그로 노노노 제발 좀

여러분 인생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휘둘릴거임?

정보처리도 마찬가지로

Big data 시대, 가짜 정보, 정보가치 낮은 거 어그로 끌리다보면?

네... 개화기 멸망한 조선 된다... 상투 안 찌르고 버티면?

개화 안 하고, 계몽 안 하면?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잠깐만...

‘근거+범위’ 이게 제일 정보량 많은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니!

역시 이걸 문제!

그럼 표그리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바로 정답같은데? 2단락에서 ‘근거’만 4번을 말했으니...

거의 60~70% 정답 같은데? 발췌독 하면...정답이네?!

심지어 법 지문 구조 특징 P-S 구조도 있네?

P : 근거(법률) ⇨ 범위. 이 원칙 어겨서 넘기면?

S : 효력 없음 ㉠

주제 구조 잡으라 했습니다.

정보가치 판단, 높은 것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이해.능지.공부센스.공부머리의 문제가 아님.

그냥 습관의 문제임.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 털어달라고? 왜?

아무리 봐도 1번 정답인데, 수학 문제 풀다가 정답이 34 나와서 6번

선지 골라놓고 나머지 선지 정답 아닌 이유 찾아요?

아... 정답 못 고르는 경우 생길까봐?

애초에 지문 제대로 정보처리 할 생각을 하는게 맞지 않냐?

왜 꼭 80분에 안 될,

혹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서,

익숙한 점수 받으라고 해?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애도 세부내용??? 아니라고



이쯤되면 좀...

딱 봐도

근거 법률 ⇨ 위임 범위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세부내용 털기 전에 주제 줘.

딱 봐, 선지 다시 봐!

근거 법률 ⇨ 위임 범위

이거 찾아 봐.

5번 좀혀지네? 이거 좀히고 발췌독 ㄱ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찾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

2) 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ljmg8uurAA> ('넌씨눈'구글검색함... 중요한 거 아님.)

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하면 당연히 동공 지진 오지..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위임명령과 같은지 확인해야 하니 이제 단락으로 가서서 발췌독?

숨은 단어 찾으세요??

수능이 숨은 단어 찾기 문제임?

수능이 시력 문제임?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군침이안도노...



언제 찾을래? 80분 안에?? 되심??? 6평 9평 안 쳤어????

여기서 시간이 지연된다?  
발췌독... 정보량 터지고 시험 던지고 싶어진다?  
응. 딱 봐도 정보 후처리 필요하다.  
표 그려라.  
왜 던지냐... 방법이 많은데!

	2단락 위임명령	3단락 행정규칙		4단락 조례
상위 근거	헌법	행정부직제 사무처리절차	P 위임명령 한계 +	지역 특수성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없음	국회 위임 근거 주체 유형 미지정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비교대조	포괄적 위임 불가			포괄적 위임 가능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X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법률 위임 없이 제정 가능	↓	어구 범위 제한
주체	대통령 총리 부			지방 의회
종류/분류	령 령 령	고시 예규	고시 예규	
절차	입법예고 공포	없음	없음	입법예고 공포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	↑ 국민적용 X		

자 5번 선지 판단해 봐.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응...  
발췌독 해도, 표 그려도 안 되냐?  
왜일까?  
왜겠어요?

**출제자 의도 사고 흐름이 아니니까!**

**배웠잖아요... 매 수업에서...**

주제+구조 딱 집중.  
주제 : 행정입법  
구조 : 비교 대조..아!  
공통점이 있긴 해?  
제일 중요한 '근거'를 봅시다.

그러네!  
국회 위임 법률에 근거해서 2단락 / 4단락이 만들어지는 반면 3단락은 국회 위임 법률 근거가 없거나, 국회 위임 법률이 뭔가 부족할 때 해결 방법으로 쓰는 거네! 그럼? 당연히 **차이점. 다르네!**

**아... 구조 뻑세계 잡을 걸...**

**주제 뻑세계 집중할 걸...**

즉,  
① 지문 정보 처리할 때  
② 문제 들어와서 발췌독 할 때  
③ 정보 후 처리 표 그릴 때  
3번이나 기회가 있었어.  
주제 구조 집중하라는!  
이러면 혼 나야지 뭐..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3단락 주제. 행정규칙 근거 법률 없음 맞음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단락 세부내용. 하지만 역시 구조 잡으면, C 일반 국민 적용 안 됨 ⇨ E 근거 법률 필요 없음. 앙? 이것도 '근거' 정보가치 높은 내용으로 탈리네?!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C 일반 국민 적용 안 됨 ⇨ E 절차 없음  
최소한 구조 뻑세계 잡았음 역시 보이겠네?  
정보가 분산이 안 되네?

**① ⇨ ② ⇨ ③ 사고 흐름이 있네!**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위임 근거 법률. 주제...  
역시 어떤 근거로 행정 규칙등의 행정 입법이 제정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구나!

그러면?  
맞네, 정리하면  
국민에 적용 안 되는 행정부 내부 관련 입법이니  
행정부 입법에 근거 법률 없어도 되고, 절차 없어도 됨!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C 첨단기술 관련성ս  
⇨ E.P 위임명령 대응 어려움  
⇨ S 행정규칙이 행정규제 입법으로 해결!  
+ 절차 없음! + 주체만 지정됨 + 유형 지정 없음  
(해결방법이니 좀 더 근거/범위/절차 등을 자유롭게 하나보군!)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③, ④ 선지는 좀 더 세부내용이지만, 주제 구조와 평가원 의도 사고 흐름을 잡아 어떤 관통의 원리 이해 후 접근하면 좀 더 쉬운 판단이 되는군!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그래... 차이점이 명백한데? 같다??

**역시, 주제로 보나, 구조로 보나!**

**정답확률 매우 높고!**

**좁혔으니 정답 특정도 쉽고 빠르고!**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아마도 근거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아마도 위임명령) ㉡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 따르면 (범위, 어구는 딱 맞게!)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세부사항인데? 아 이건 같은 국회 제정 법률이군!)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이건 조례!)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표를 그리는 과정에서, 즉 앞선 문항 풀이과정에서 처리된 정보 기반으로, 위와 같은 처리가 가능하고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바로 답 나오네요. 구조/정보가치 높은내용 집중하니!**

**법률 제3조 : 일반적 내용이고,**

**법률 제16조 : 세부사항이니, 1번 선지 맞아 보이고!**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주제+구조!**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위임명령**

**이것도 맞나??**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행정 규칙 제외 모두 절차가 있는데! 틀렸군!**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정답이네?!그러면??**

	2단락 위임명령	4단락 조례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어구 범위 제한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2단락 위임명령	4단락 조례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어구 범위 제한
국민적용 여부	국민적용 ○	?

알 수 없는데? 정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실?? 아니야.

**세부 내용.**

**처리 불가 정보**

**완결성 없는 정보 이그로 나**

물론, 추론하면,

조례의 제정 주체는 지방의회이니

해당 지방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준수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그런 추론과 그 추론을 위한 충분한 정보 처리 후 필요한 정보만 끌어와서 판단? 실전에서? 안 된다니까... 네. 되면 하세요... 하시던 대로... 진즉 1등급 백분위 100 나왔지...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3조의 구체내용은 16조에서 확인!**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위임명령 5조의 근거는 법률 3조!**

**역시! 좁히니까 보이는 세부 내용!**

**아시겠어요?**

**세부 내용도 결국에는**

**주제-구조-정보가치 좁히는 것에서 시작!**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6월)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끈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6월)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 간밤. 무엇을 간구. [A] 울었음  
**이면적 정보**  
 뭔가 찾는 부정적 상황같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전환**  
**표면적 정보**  
 ↓ 아침. 시. 굽이굽이. 은은히  
**이면적 정보**  
 아침이 되면서 좋아졌나?  
**문학적 관습=처리근거**  
 시인에게 시 = 긍정!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유지**  
 꽃... 긍정 상황이고  
 숨으라? 이걸 잘 모르겠는데..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유지**  
 환히. 트이는. 떠오르는. 꿈  
 모두 긍정!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유지**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도니까  
 가락을 더듬으니  
 역시 모두 긍정!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유지**  
 즐거이 노래 부르니까!  
 근데 왜 사양하라고 하지?  
 이것도..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집약-주제**  
 수미상관이네? 그런데  
 노래로 바뀌었으니 [B]  
 슬픔 = 부정  
 노래 = 긍정 상황 전환!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군!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끝이끝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아마도  
 나무 = 나 = 시골에서 온 존재  
 = 솔직함  
 그랬더니 도시 적응이 힘든데?  
 도시 = 벌레들 날 땀  
 살기 힘들다 = 신경증, 불면증  
 =치욕같구나...  
**주제**  
 나무와 나의 동일시  
 ⇒ 도시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딱 3번 선지 정답확률87%  
 맞네!  
 (가) 부정⇒긍정 전환있고  
 (나) 주제는 당연히 있고  
 좁히고 발췌독... 명령, 단정. 있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등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  
 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나)는 단정  
 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  
 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전환! 4번만 out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운개 한 문구는 [B]의 '여기 높  
 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역시 전환!)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대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  
 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부정⇒긍정!)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  
 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부정⇒긍정!)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  
 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잠시만... 숨으라... 사양하라... 지향점? 이상한데?! 전환도 없고!)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  
 다.(그치! 기원 ⇒ 실현! 전환. 역시 정답은 그럼 4번이군!)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주제 집중. 바로 5번 정답!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  
 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  
 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  
 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  
 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  
 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  
 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  
 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역시 주제!)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역시 주제!)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  
 을 드러내고 있군.(역시 주제!)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  
 을 보여 주고 있군.(역시 주제!)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  
 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나무를 왜 비판해! 도시가 문제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9평)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혼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 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9평)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반짝. 자유 vs 죽어있는 나의 영  
**이면적 정보**  
 성찰 ⇨ 자기 비판이군  
 \*매우전형적 주제

**유지**  
**표면적 정보**  
 벗. 마음에 안 든다  
**이면적 정보**  
 부정적 인식

**유지**  
**표면적 정보**  
 전부 마음에 안 드네!  
**유지**  
 여기도 전부 마음에 안 드네!

**집약**  
 수미 상관 하면서  
 반짝. 자유  
 vs  
 죽어있는 나의 영  
 자아 성찰/비판이군!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을 겨울 몫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붙들린 배 = 혼련 = 얼었어  
**이면적 정보**  
 아마 부자유  
**유지-표면적 정보**  
 왜 우리는 바웃고 시시덕 대고  
 웃음을 참지 못해?  
 불박힌 말?  
**이면적 정보**  
 아마 부자유 비판?

**집약**  
 부자유+팡팡팡 몫시 춥다  
**이면적 정보** 바웃음 = 비판  
 얼고, 변화 가능성 안보임 !!

- 김혜순, 「차가운 어근 눈이 내리나」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성찰/자신이 마음에 안들 = 주제  
 5번 말고 있음? + 수미상관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적 관습!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구조:축발!)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혼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정답!. 문학적 관습. 스스로 부자유? 아마도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자유겠지! 혼련이 어떻게 내부요인임?)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비판!)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부자유 비판! 2번 선지와 대립.)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을 이를 통해 강조된다. (역시 주제의식!)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문학 설계에 따라 보기연결!  
 +베이즈주의 정답확률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 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잠시만요.. 정답이 이러면 없나?  
 아 역시!  
 상황 ⇨ 반응(정서)  
 (가)나의 영이 죽어있는 것 아니냐 = 비판/성찰에서 끝나는 걸까?  
 = 선지처럼 좌절로 끝나는 것일까?  
 그러면 뭐하러 비판 / 성찰해? 어차피 해법이 없으면???

아! 역시 문학적 관습.  
 비판/성찰을 한다는 것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다만, 해법을 찾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방법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①				②③④⑤		

100% : 성찰

80% : 성찰의 전제(1)를 생각하자  
 = 고민만 하고 끝날까? or 더 나은 방향으로 갈까?

70% : 성찰의 전제(2)를 생각하자  
 = 해결 방법이 없는데 성찰할까? or 해결 방법이 있는데 성찰할까?

100% : 문학적 관습 + 평가원 출제 의도 + 교육 목표 생각하자  
 = 체념을 가르칠까? or P-C-S 해법을 찾아가게 할까?

40% : 물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있으니, 부정적 현실 인식과 성찰 차원에서만 머무른다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문학적 관습 - 평가원 mind set에 비추어 보면 옳을 확률은?

그렇다면 아마도? 정답은?  
 ①

20수능 베이지주의 논리처럼,  
 14기출 칸트 이성+감정 ⇨ 미감적 판단력 : 공통감 = 공동체의 감각  
 ebs 기출 : 의미 이론 1.주관 ⇨ 2.객관 ⇨ 3.사회/공동체

위와 같은 평가원 문학적 사고 틀 잡으시길 바라고,  
 6-9의 소설 파트는 큰 이슈가 없어서, 22예비평가로 다루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완 실전 3 31~33 202~203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관아에 이르니 마을 사람 우회적, 서형, 조상규, 유연의 매부인 최수인, 서족인 홍명이 앉아 있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채응규는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구 부사 박응천이 좌중의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 유유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사는 좌중의 사람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채응규에게 캐물었다.

[A]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 네가 한번 말해 보아라.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지.”

채응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즉시 뜰로 끌어 내려 삼목을 채워 묶고 말했다.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쇠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진짜 유유라면 친구들을 못 알아볼 리 있겠느냐? 지금 네가 사실을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터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관아의 형벌로 다스리겠다.”

그자는 일이 궁색해지자 자신이 유유라고 했다가 채응규라고 했다가 두서없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짐짓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잠시 후에 채응규의 첩 춘수라는 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제 남편은 불행히도 병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옥에 가두지 마시고 사처에 억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는 관노 박석의 집에 머물게 했다.

5일 뒤 채응규와 춘수가 밤을 틈타서 달아났다. 박석이 알아차리고 뒤쫓아 춘수를 잡았지만 채응규는 이미 달아나 종적을 감추었다.

유유의 아내 백 씨는 실의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며 감사에게 호소했다.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짜를 가짜라 하며 형을 결박하여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본래 광증을 앓고 있던 터에 구금을 당하자 병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다행히 태수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 감시하는 군졸을 매수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했습니다. 유연의 죄를 따져 제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령하여 유연·춘수·박석을 잡아 가두게 했다. 유연의 아내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채응규다.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 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국문을 마치면 마땅히 바로잡을 것이다.”

백 씨가 유연을 이웃 마을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현풍으로 옮겨 가두었다.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 다니며 고생을 겪어 외모는 비록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다름 아닌 유유이거늘, 그 아우가 적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 유유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부사는 유유와 유연을 함께 옥에 가두어야 마땅했거늘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 옥사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또 유연의 옥사

[B]

처리를 지연시켜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 두고 있으니, 경상도 사람 중에 분통해하며 욕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유연을 잡아 와 죄를 다스리고 부사 박응천은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윤허했다.

이때 유연이 서울의 옥에 잡혀오게 되자 이지과 심용이 마주 앉아 모의를 하며 은밀히 김백천에게 물었다.

“유연이 오면 우리도 국문을 당할 텐데 자네는 뭐라고 말할 작정인가?”

김백천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유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지과 심용이 말했다.

“그러면 자네는 유연과 함께 목이 잘릴 걸세.”

“그렇다면 뭐라 말해야겠습니까?”

이지과 심용이 이런 말로 중용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면 아무 근심 없이 지나갈 걸세.”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연은 매부인 이지과 형수 백 씨의 계략에 의해 형 유유를 죽였다는 모함을 받고 하옥된 후,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고 죽는다. 유연의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매일 하늘에 기도하며 지내던 중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범부에 호소했다.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달성령 이지의 재산 다툼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미망인인 저는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유연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 한 통을 삼가 올립니다.”

유유가 나와 말했다.

“저는 천유용이 아니라 유유입니다.”

유유는 부친의 이력을 자세히 말했고, 친척과 하인은 물론 평소에 사귀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척척 대답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유에게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유유는 이렇게 말했다.

“혼인한 지 3년이 되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내에게 소박을 놓았다 여기시어 저를 꾸짖고 당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평안도로 들어가 소식을 끊고 지냈고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항복, 「유연전」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응규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횡설수설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 ② 춘수는 채응규를 사처에 머물게 해 달라고 부사에게 요청하고, 채응규와 함께 도주를 시도하여 채응규는 달아나지만 자신은 잡힌다.
- ③ 감사는 백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대구 부사로 하여금 유연을 잡아들이게 했다.
- ④ 이지와 심옹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김백천에게 자신들과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고 있다.
- ⑤ 유유는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후,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로 지냈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부사는 채응규가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 ②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옥사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부사를 파직하라고 간언하고 있다.
- ③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감사의 판결 내용이 보고되기 전, 유연에게 죄가 있음을 임금에게 아뢰고 있다.
- ④ [B]에서 간관은 [A]에서 부사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A]에서 부사는 대질 심문을 통해 채응규에게 죄가 있음을, [B]에서 간관은 옥사 처리의 부당함을 근거로 부사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서사 전개를 '송사'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항복이 쓴 전(傳) 작품이다. 유연의 형 유유의 가출 후,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 백 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1차 송사)에서 채응규가 가짜임이 드러나지만, 이후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벌어진 국문(2차 송사)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이지 등이 승리하게 된다. 2차 송사 중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 씨가 법부에 호소한다. 이에 송사(3차 송사)가 다시 벌어져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유연을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항복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 ① 1차 송사 진행 중, 채응규가 도망을 감으로써 2차 송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군.
- ②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는군.
- ③ 2차 송사 과정에서 유연이 죽은 사건은 당시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진행된 3차 송사를 통해 유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겠군.
- ⑤ 2차 송사는 친인척의 재산 다툼이, 3차 송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군.

2021학년도 수완 실전 3 31~33 202~203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관아에 이르니 마을 사람 우희적, 서형, 조상규, 유연의 매부인 최수인 서죽의 홍명이 앉아 있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최응규는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구 부사 박응천이 좌중의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 유유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사는 좌중의 사람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채응규에게 캐물었다.

[A]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 네가 한번 말해 보아라.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지.”

채응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즉시 뜰로 끌어 내려 삼목을 채워 묶고 말했다.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쇠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진짜 유유라면 친구들을 못 알아볼 리 있겠느냐? 지금 네가 사실을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터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관아의 형벌로 다스리겠다.”

그자는 일이 궁색해지자 자신이 유유라고 했다가 채응규라고 했다가 두서없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짐짓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삼시 후에 채응규의 첩 춘수가 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제 남편은 불행히도 병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옥에 가두지 마시고 사처에 억류해 두시길 바라옵니.”

부사는 관노 박석의 집에 머물게 했다.

5일 뒤 채응규와 춘수가 밤을 틈타서 달아났다. 박석이 알아차리고 뒤쫓아 춘수를 잡았지만 채응규는 이미 달아나 종적을 감추었다.

유유의 아내 백 씨는 실의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며 감자에게 호소했다.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의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친자를 가짜라 하며 형을 결박하여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본래 광증을 앓고 있던 터에 구금을 당하자 병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다행히 태수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려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 감시하는 군졸을 매수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했습니다. 유연의 죄를 따져 제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령하여 유연·춘수·박석을 잡아 가두게 했다. 유유의 아내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채응규라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유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 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국문을 마치면 마땅히 바로잡을 것이다.”

백 씨가 유연을 이웃 마을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현풍으로 옮겨 갔다.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 다니며 고생을 겪어 외모는 비록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다름 아닌 유유이거늘, 그 아우가 적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 유유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부사는 유유와 유연을 함께 옥에 가두어야 마땅했거늘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 옥사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또 유연의 옥사

[B]

처리를 지연시켜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 두고 있으니, 경상도 사람 중에 분통해하며 욕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유연을 잡아 와 죄를 다스리고 부사 박응천은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윤허했다.

이때 유연이 서울의 옥에 잡혀오게 되자 이지와 심용이 마주 앉아 모의를 하며 은밀히 김백천에게 물었다.

“유연이 오면 우리도 국문을 당할 텐데 자네는 뭐라고 말할 작정인가?”

김백천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유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와 심용이 말했다.

“그러면 자네는 유연과 함께 목이 잘릴 걸세.”

“그렇다면 뭐라 말해야겠습니까?”

이지와 심용이 이런 말로 중용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면 아무 근심 없이 지나갈 걸세.”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연은 매부인 이지와 형수 백 씨의 계략에 의해 형 유유를 죽였다는 모함을 받고 하옥된 후,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고 죽는다. 유연의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매일 하늘에 기도하며 지내던 중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법부에 호소했다.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달성령 이지의 재산 다툼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미망인인 저는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유연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 한 통을 삼가 올립니다.”

유유가 나와 말했다.

“저는 친유용이 아니라 유유입니다.”

유유는 부친의 이력을 자세히 말했고, 친척과 하인은 물론 평소에 사귀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척척 대답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유에게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유유는 이렇게 말했다.

“혼인한 지 3년이 되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내에게 소박을 놓았다 여기서 저를 꾸짖고 당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평안도로 들어가 소식을 끊고 지냈고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항복, 「유연전」

우선 인물이 20명 넘음... 이럴 때?

주인공 중심 서사잡으라 했음

특히, 구조적 특징이 있으면 잡으라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핵심은

유유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래서 정리하면

# 국어 영역

#1. 채응규가 유유 행세 ⇨ 결국 탄로남 ⇨ 채응규 첩 춘수가 호소

#2. 관노 집에 잡아 두었던 채응규 도망감

여전히 유유의 행적은?  
그러나?

#3. 유유의 아내 백씨 생각 ⇨ 유유 동생 유연이가 죽었어! 원통해!

일단, 다 잡아 놓고 문초 해야하니,  
감사는 부사에게 싹 잡아들이라고 명령

그러면? **VS**

#4. 유연의 아내 이씨 생각 ⇨ 억울한 누명입니다!

감사는 그것도 맞다고 하지만 백씨가 호소한 이유가 있을테니...  
일단 수사부터!

그런데? 조정으로 가버렸네?

#5. 간관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유유 : 행방불명, 행색이 달라도 유유는 유유지!  
유연 : 유연이가 재산을 뺏으려고 유유 죽였어요!  
부사 : 수사를 잘못했어!

따라서,

- C1. 수사 잘못
- C2. 수사 지연
- C3. 경상도 민심 들끓어!
- E1. 부사 파직
- E2. 유연이 감빵!
- 임금 승인

#6. 갑자기... 모의?

아마 뒤가 구린놈들 끼리 모여서 뭔가 하겠지?

#7. 줄거리. 요약제시. 정보가치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구나! 아마도  
유유가 행방불명  
유유 아내 백씨는 유연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연이는 억울하게 죽고  
유연이 아내 이씨는 또 억울함 호소  
그런데 유유가 나타나?  
이제 사건 전모 밝혀지겠군!

#8. 유유 등장. 모든 사건 밝힘

유유가 아버지 때문에 잠수...

이렇게 잡힌 주제-줄거리 바탕 접근하면?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응규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황실수설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1
- ② 춘수는 채응규를 사처에 머물게 해 달라고 부사에게 요청하고, 채응규와 함께 도주를 시도하여 채응규는 달아나지만 자신은 잡힌다. #1~2
- ③ 감사는 백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대구 부사로 하여금 유연을 잡아들이게 했다. #3vs4. 이상한다? 정답!
- ④ 이지과 심옹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김백천에게 자신들과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고 있다. #6
- ⑤ 유유는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후,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로 지냈다. #8

킬러 유형 하나 잡습니다!

19수능 오발단. 장면vs장면 으로 갈등양상 구조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3 vs #4에서

#5 부사는 중립

하지만

#5는 #3 선택 #4배적

핵심은 #3 vs #4

유유의 아내 백씨 vs 유연의 아내 이씨

모함-모략 vs 진실

역시 가장 정보가치 높으니... 정답!

그 흐름이?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부사는 채응규가 친척이다. 마을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1. 내면심리. 의도 정확
- ②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옥사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부사를 파직하라고 간언하고 있다. #5. 판결은 C-E구조!
- ③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감사의 판결 내용이 보고 되기 전, 유연에게 죄가 있음을 임금에게 아뢰고 있다. #5. 장면
- ④ [B]에서 간관은 [A]에서 부사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5. 확기 불가... 그리고 이미 채응규 이야기는 #5에서 주제가 아닌데? #3vs#4인데?
- ⑤ [A]에서 부사는 대질 심문을 통해 채응규에게 죄가 있음을, [B]에서 간관은 옥사 처리의 부당함을 근거로 부사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하고 있다. 판결은 C-E구조. 따라서 [A]와 [B]의 공통구조!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서사 전개를 '송사'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항복이 쓴 전(傳) 작품이다. 유연의 형 유유의 가출 후,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 백 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1차 송사)에서 채응규가 가짜임이 드러나지만, 이후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2차 송사) 과정에서 권력과 친탁한 이지가 승리하게 된다. 2차 송사 중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조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씨가 씨가 법부에 호소한다. 이에 송사(3차 송사)가 다시 벌어져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유연을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항복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 ① 1차 송사 진행 중, 채응규가 도망을 감으로써 2차 송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군. 구조된 상관? C:백씨 고소 ⇨ E:2차 송사. 일단의심!
- ②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는군. 1번 선지 연결 사고 흐름 - 평가원 의도 사고 흐름
- ③ 2차 송사 과정에서 유연이 죽은 사건은 당시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구조 C:권력결탁 ⇨ E:승소
- ④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진행된 3차 송사를 통해 유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겠군. 구조 C:유유 나타남 ⇨ E:3차송사 진실 밝혀짐
- ⑤ 2차 송사는 친인척의 재산 다툼이, 3차 송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군. 구조 C:음모+살인죄 누명 ⇨ E:2차송사 C:유유 등장. 유연아내 이씨 억울 ⇨ E:3차송사 진실밝혀짐. 권력 탐욕? 정답 5번!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2예비)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겔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

[A] 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B]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 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영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영체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영체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예비)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C**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E**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E**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러할라네.” **C**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나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걸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

[A] 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B]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현몽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C** 이제 생각하여 보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지한 것이었다. 너무 **C** 근거가 박약하고 **C** 마음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지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C** 어린아이이다. 마침 **C**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1. 줄거리

- 형식 - 영채와 먼저 약혼. 죽은 줄 알았고
- 형식 - 그래서 선형과 약혼 + 미국 유학 그런데 영채가 두드등장?

#2. 표면: 외적 갈등 - 작가의도/이면: 내적갈등

#3. 장면[A] 표면: 내적갈등 < 감정/감성 근거

미국 유학 - 선형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표면은 우선과 대답이지만, 실제로는 형식이 내적갈등 [A]로 이어짐

(중략)

#4. 장면[B]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갈등 < 이성적 근거

#5. 성찰: 사랑-개인 차원 슬프다 보다는 미성숙하구나!

#6. 성찰: 사랑-사회 차원

P 조선 **C** 어린 없는 사회 - S 내가 어른 되어서 계몽해야지(가르쳐야지)  
P 사실은 내가 **C** 어린아이 - C 조선도 미성숙, 나도 미성숙  
즉, 사회도/공동체도 미성숙, 나도 미성숙  
S 당연히 해법은 개인적 계몽,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계몽이겠지  
(문학적 관습 근거, 평가원 mind set)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갑자기 자기주도? 자기희생?

주제 잡자...

[A] 미국 유학 - 선행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 감성/감정

[B] 선행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 갈등과 성찰 : 이성근거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정답! 맞췄어? 역시 주제-구조-핵심 갈등-서사 잡으라 했음!

[A] 선행이나 영채냐 = 사랑의 대상

[B] 선행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 갈등과 성찰 : 이성근거 근거!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2번 선지 이어지는 사고 흐름 보입니까!

이성과 감성 뒤집었군! 다시 한 번 2번 선지!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도 뭔가 핀트가... 현재와 미래? 그런 상황이 아닌데?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둘 다 내적 갈등인데 확신이 어디 있어!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발 이것도 주제 좁히고,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 ① ㉠: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인과 구조 정확히 잡히구요!

- ② ㉡: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행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아마 이게 만류하는 친구 입장이라면 역시 정확하고!

- ③ ㉢: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다시 형식이 입장이면 구조/내용 맞추요

- ④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행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잠깐 stop!

#3. 장면[A] 표면 : 내적갈등 < 감성/감정 근거

미국 유학 - 선행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선행이랑 가는게 미국유학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역시 핵심사건. 갈등. 정보가치 높은 것에 집중! 정답!

- ⑤ ㉤: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냐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에 setting된 주제의식

문학적 관습

성찰 > 개인적 - 사랑 - 미성숙

성찰 > 사회적 - 미성숙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윤리, 권력... 당연히 아니구요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문학적 관습으로, 조선-개화기-계몽사상-일제강점으로 이어지면 3/4번선지 고려도 가능하지만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이것이 가장 주제에 가깝죠! 정답 스펙트럼!

어린이 : 미성숙 = 이상 관념 수준

어른 : 성숙 = 이상 체득

정답!

미스터 션샤인 출제 가능 높다고 한 근거!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T1. 연애=개인 주체인식, 자아인식)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T2. 연애=사랑=결혼 제도 변혁)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 (T2. 제도변혁이니깐!)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 (T3. 계몽!)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 (T4. 진실발견)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 (T4. 성찰-결핍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의식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T1. 근대적 자아 개념의 확립과

T2. 사회 제도 변혁과

T3. 계몽가

T4. 진실발견-성찰-결핍발견

결국 사회도/개인도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지금 이 시기!

부연 설명 하면,  
 조선시대 여성은 이슬람 회잡 같은 것 쓰고 얼굴 못 내놓고  
 노비들은 이름도 없고  
 주체적인 사랑? 당연히 없고  
 결혼? 사랑이 아닌 가문의 결정이고!

즉, 개인의 주체적 삶의 결정 불가능  
 그런데? 개화기? 사랑? 자신의 선택!  
 역시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T2. 근대적 제도로의 변혁으로 이어지며

T3. 미개한 그 시절 개화 즉, 계몽으로 이어지고

T4.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진실의 발견 = 성찰 = 결핍, 즉 부족함  
 의 발견 = 그래야 성장하겠지.

평가원의 따스한 한 마디 아시겠나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마음!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주제 : 개인적 차원 보이고!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주제 : 개인적 차원 보이고! => 이어지는 사고 흐름!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T1에서 T2~T3이어지는 주제 흐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제도 변혁, 그리고 계몽성까지!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T1에서 T2~T3~T4이어지는 주제 흐름!  
 그리고 평가원의 사고 흐름 보이시나요?  
 역시! 평가원.. ㅠ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뒤편? 네. 역시 정답. 주제 집중하면 말도 안 되는 진실 보입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1 화작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1 파이널 5주차 화작 원론
  - 2 정규 커리 화작 원론
- 으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2 문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1 파이널 미리보는 9평 문법
  - 2 정규 커리 문법 원론
- 으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3 문학전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1 파이널 4주차 문학 원론
  - 2 정규 커리 문학 원론으로
- 으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4 독서 전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1 파이널 1~2주차 원론
  - 2 그랜드 파이널 1 원론
  - 3 정규 커리 독서 원론
- 으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5 실전 연습이 부족을 느끼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면

- 1 올해 6월 9월을 배운 것 바탕 철저하게 구조 분석 내손으로!  
 cf )내손내공  
 = 내손으로 공부해야 내공이 쌓인다  
 = 내손으로 공부해야 내 공부가 된다
- 2 원론서 화독을 높이면, 읽었던 내용을 빠르게 처리하는 시선처리 습관이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올라옵니다.
- 3 결국 평가원이 의도하는 사고 흐름 잡으면 된다! 라는 사실 잊지 말고
- 4 이 자료만으로도 당신은 19수능 만점자 148명, 20~6월 만점자 65명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수험생.

당신은,  
 수능 국어 압도적 1등 강의와 자료, 그리고 과정과 관리를

모두 경험한, 배인호 초격차 국어를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당신은, 올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보다도 가장 앞 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계속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 발 더 내딛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토가 됩니다.



그대는 나아가시오. 난, 한걸음 물러나니.

나아가십시오.

### I. D-7 행동 준칙

1. 모든 수험생의 실력. 평소의 50% 미만의 실력.

긴장. 압박. 체력과 정신력의 고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자리.

100%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2. 철저히 매일 매일을 '수능 시험 당일'로 살아가라.

- 매일 실전 연습 + 실전 대응 확립

- 지금까지 모든 공부 복습 + 오답 정리

3. 실전연습

① 시간관리 (Lap time check)

ex) 8시 50분에는 몇 번 정도를 풀고 있을 것이고... 9시 20분에는 몇 번 짚을 풀고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더 늦거나, 더 빠르거나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기계적으로 실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② 상황노출. 대응. 해법 찾기. (P.C.S) 명문화

ex) 다양한 실전 상황에 노출되고, 문제점, 원인, 해결책을 찾고 명문화하여, 각인. 정리.

4. 복습

① 훑어보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전체)

② 집중분석 (오답, 6.9.작년 수능. 중요 내용)

5. 멘탈

평정심 유지를 위한 방법 찾기. P.C.S

6. 체력

식사. 수면. 보온... 건강관리 요소

7. 리허설 자료 준비

6월, 9월, 작년 수능으로, 문항별, 페이지별, 시간대별 행동준칙 정립. 이미지 트레이닝. 손으로 올해 6/9 시험지에 직접 작성.

### II. D-1 행동 준칙

1. 전날. 당일.

① 취침은 11시 이전.

- 적정 수면시간은 7~9시간. 7시간을 잔다해도, 11시에는 자야 당일 6시 기상 가능. 기상 후 2시간 30분 뒤 두뇌 활성화. 따라서 8시 30분 시험 시작에 시간을 맞추기 위함. 사람에 따라서는, 전날 9시에 취침 후, 9시간 수면 필요. 적정 수면 시간 찾을 것.

② 시험장에서는 조용히. 실전 리허설 자료 집중.

- 수능 시험장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들어갈 확률은 0%라고 봐도 무방(24명 중 상위 11% = 2명 = 2등급)

- 따라서, 주변의 흐름과 느낌은 절대 무시.

- 내 자신의 흐름에 집중.

- 리허설 자료 집중.

- 문제 풀이 순서, 호흡, 모두 내 자신의 감각에 철저히 의존하고 집중할 것.

③ 나만 어렵지 않다. 모든 시험은 독립 시행

-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은 해는, 나머지 과목 모두의 평균 성적이 하락한다.

- 하지만, 국어의 난이도와, 다른 과목의 난이도는 독립시행. 확률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심리적 문제가 다른 과목에 까지 악영향을 준다.

- 매 교시, 이전 시험은 잊어라. 리허설 자료로 철저히 다음 시간 수업 준비에 집중하라.

2. 수시. 면접. 논술. 모든 남은 전형에 최선을.

- 이제 입시는 정보력 싸움이다. 최후의 순간 까지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한 과정을 놓치지 마라.

\*마지막 한 장 파일은 PDF로 제공됩니다!

\*EBS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 별도의 PDF로 제공됩니다.

## 올해를 정리하며.

파이널 교재를 쓰며, 유난히 눈물이 많아졌다. (설마...갱년기? 야발...)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었던, 잡스가 생전에 남긴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이런 말들이었다. “잠에 들 때, 그리고 일어났을 때,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그것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올해, 나는 유난히 많이 아팠다. 아니, 평생, 가장 아팠다. 전국을 다니며 무리한 작년의 여파로, 올해 초 밸런스가 깨졌다. 수면-식사 모든 것이 영키는 과정에 체중만 붙었다. 아이폰 FACE ID는 도대체 왜 인식이 안 되냐... 삶을 정도로 모든게 망가졌다.

코로나가 왔다. 운동도 못하니 모든 것이 망가지는 상황.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무리한 운동으로, 인대가 파열되었다. 지금까지도 수술을 못했다. 앓는 것이 불가능한 3개월이 지났다. 앓는 순간 허리가 굽어 꼬부랑 할머니가 된다 무릎꿇고 일하다가 무릎 관절 나갈 것 같아서, 서서 일하기 위해 서서 일하는 책상을 샀다.

옆친데 덮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음성인데, 식중독이 왔다. 하루에 설사를 20번씩. 체온은 39도를 넘겼다. 그래도 수업은 했다. 어제는 왼팔, 오늘은 오른팔. 링거를 맞고서. 이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봤다. 평범한 노동자의 자녀로 태어났다. IMF로 아버지 실직, 어머니의 식당은 망하기 직전. 누나는 7만원 원서비를 아끼라는 엄마 때문에 전교 1등을 계속하고도 4년 장학생 받고 갈 수 있는 서울 교대를 갔다가, 자퇴, 재수, 교원대, 자퇴, 삼수... 운이 좋았다. 허준 드라마 때문에 한의대는 광탈했는데 예비4번 받고 의대를 갔다. 다행히 지금은 소아과 의사, 매형은 치과의사. 성공했다. 본인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하지만, 의대 생활 내내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아빠가 날을 새서 겨울 추운 날씨에 경비를 서서 받은 한달 60만원, 엄마가 낸 빚으로 의대를 졸업했다. 문제는 누나의 동기들은 죄다, 대기업 임원, 의사 부모, 의대 교수 친구 부모를 두었다. 모든 동기들의 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 부모님만 계시지 않았더라. 누나의 푸념. 누구나 자기의 삶이 가장 무겁겠지만, 사실은 내 삶이 가장 무거웠다. 그리고 내 삶이 무거웠던 만큼 우리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알기에, 이제는 단 1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은 없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맞벌이, 고향은 창원이었으나, 유치원은 천안에서, 그리고 초등학교는 목포에서 다녔다. 지옥. 있을 수가 없는 지옥이었다. 그래서, 사법 시험 쳐서, 검사 되어서, 못 된 놈들 다 때려잡겠다는 꿈을 꾸고 공부를 시작했다. 성적은 오르고 올라서 전국 70등.

하지만, 상황이 꼬였다. 고등학교는 2번을 자퇴했고, 4년 장학금에 고시 경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진학. 하지만 생활이 불가능했다. 살려고 군대에 갔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해야했던 단칸방 살림에서, 그래도 삼시세끼, 옷, 심지어 온수가 나오는 군대가 차라리 환경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

군대에서 계속 생각했다. 공장에서 일해서 월 200벌어서 학비 생활비 대자면 군대 2년, 돈 모으는 4년, 대학 4년, 30이다. 시간을 저당잡혀 돈을 버는 노동자로는 답이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업 아이템이 보였다. 이등병 월급 9800원이던 시절. 그거 2년 가까이 모은 21만원 중에. 말년 휴가 해운대에서, 의대 다니던 친구랑 놀다가 5만원 잃어버리고 남은 돈 16만원으로 사업 시작. 1년만에 16억이 넘는 매출이 되었다. 그 당시. 스타일 난다, 임블리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

하지만, 짐승도 타고 난 터가 결정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없던 집안 환경은 교대 혹은 공무원이 유일한 답. 내 스스로도 검사에 대한 꿈은 놓지 못했다. 번 돈으로 다시 재수. 타협점을 찾았다. 02학번이 08학번이 되었다. 7년 걸렸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림동 고시촌 생활은 딱 1달만 견딜 수 있었다.

Seed money는 있었지만, 답이 안 보였다. 고시는 아니다. 이 시대는 뭔가 다른 답이 있는 시대였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수험 생활 오래 했으니, 그것도 어마어마한 성적 상승을 바탕으로, 최상위권에서... 강사를 해보자. 강사 시작 1년만에 인강 강사가 되었고, 인강 강사 시작 1개월 만에 1타급 강사가 되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었다. 10년 전 kt에듀에서 벌어들인 수입 중 20억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 심지어 판결이 났는데도, 법인 청산. 돈 받을 길이 없다. 그래도 번 돈으로 기부도 했고, 주요 신문 2면 탑 기사, 각종 방송 출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답을 못 찾고 있었다.

코딩도 배웠고, 경영도 배웠고, 사업도 배웠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교육과 수업은 항상 열심히였다. 아니 정확히는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었다. 그렇게 암흑과도 같은 몇 년이 흐르고, 몇 번의 사랑과, 몇 번의 좌절과, 몇 번의 죽음과 삶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곳에 있다. 답은 하나 였다. 죽을만큼 힘들 때, 한 발 더 내딛는 것. 인생은 가까워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다름 없는 내 삶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쓰러져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다. 매 순간 순간 누구보다 스스로를 불태우며 불꽃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매 순간이 불꽃이고, climax이기 때문에.

서울대 졸업  
최연소 15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 임원  
최연소 서울대 역대 기부  
최연소 1타 강사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이따 것들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 자아를 찾는 것  
세상, 시대 정신을 읽는 것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삶을 매 순간 불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 **Live your life. See you!**